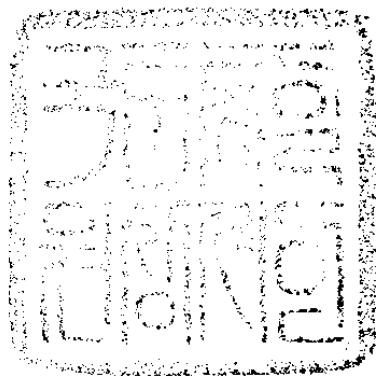


3/31
200911

韓國의 平和統一政策

1975. 12.



} 한국통일연구원
" 통일사
연구실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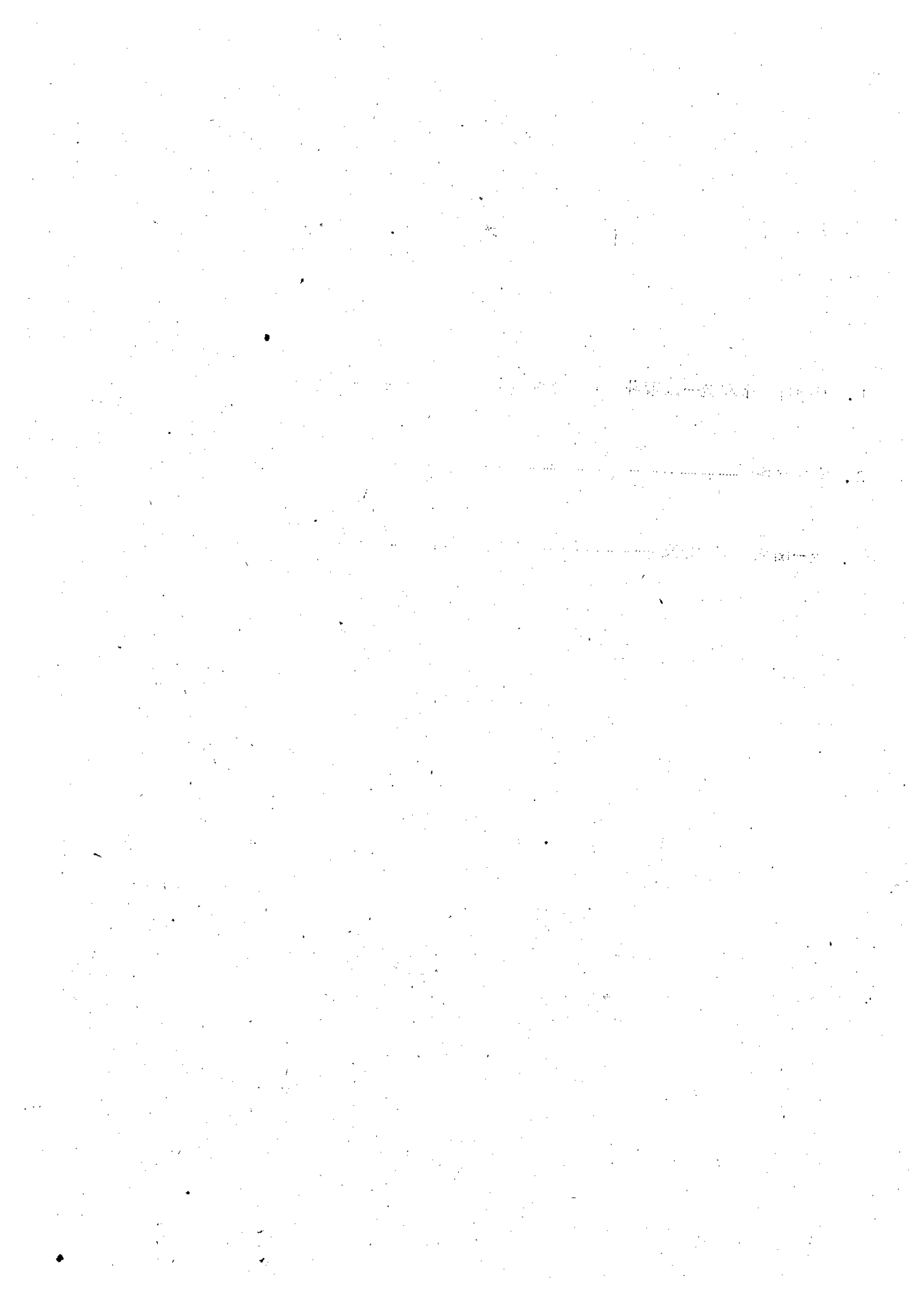
1975. 12.

極東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康 仁 德

目 次

1. 韓國의 平和統一政策과 關係資料	3
2. 關係資料	13
3. 統一關係 年代表	59



1. 韓國의 平和統一政策

韓國의 平和統一 努力

大韓民國의 國家至上目標은 分斷된 祖國의 統一이다. 이것은 憲法前文에 明示되어 있을뿐 아니라 1973年 6月 23日 公表된 平和統一外交政策의 才1項에 確固하게 再確認하고 있다.

大韓民國이 追求하는 統一政策의 目標을 細部的으로 說明한다면 平和的인 方法과 手段을 통하여 南北韓 兩 異質社會의 政治的 統合을 이룩하자는 것이며 또한 自由民主主義理念에 바탕을 둔 自由民主·統一·獨立韓國을 건설하는데 있다.

이러한 內容의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大韓民國이 採擇하고 있는 統一方案은 公正한 管理와 감시하에 실시되는 自由總選舉이다. 大韓民國은 傳統的으로 公正한 管理와 감시하에 南北韓 全域에서 自由總選舉를 실시하고 南北韓의 地域別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國民의 代表者를 選出하여 統一韓國의 立法機關을 構成하며 이 立法機關으로 하여금 統一韓國의 政府를 구성하도록 하자는 統一方案을 제창해 왔다.

한편 北韓도 역시 표면상으로 平和統一을 주장하여 外的 輿論을 유리하게 유도하면서도 內실적으로는 軍事力을 強化하고 北韓人民을 動員 체제화하고 國土를 병영화하여 暴力的 方法과 手段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體制를 顛覆하는 方式을 追求하고 있다. 이는 6·25

전쟁과 헤아릴 수조차 없는北韓의武力挑發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이赤化統一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南朝鮮革命路線은 바로上記에서言及한暴力的인수단과方法에 의한相對方体制의顛覆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赤化統一企圖로 말미암아韓半島에는戰爭再發의危險이高潮되고 있으며 이地域에서의國際平和가 계속威脅을 받고南北의5千萬國民들은 끊임없는戰爭의 공포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안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4半世紀에 걸친南北韓의社會的斷絶로 인한 두社會間에는民族的同質性的의태반이破壞・流失된 가운데 엄청난社會的異質化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 상호 이해와信賴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인식에 기초하여大韓民國은 1970년초부터平和統一에 접근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건설적인統一政策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韓國의 새로운平和統一政策의政策基調는 4半世紀 이상의長期間을 사실상戰時狀態下에 隨해 있는相互否定的南北關係를 보다相互肯定的인平和的關係로轉換시켜戰爭再發의危險을抑制하고, 그러한平和的關係속에서南北韓의 두社會間에 상호交流와協力등 실질적인兩者關係를 발전시켜相互社會的開放의 면적을擴大해 나감으로써 상호이해와信賴의분위기를 증진시키며, 이러한過程을 통해 과거 30년간의社會的斷絶로 말미암아破

壞。流失된 民族的 同質性を 복원, 社会的 統合의 領域을 점진적으로 넓힘으로써 政治的 統合을 可能하게 하는 与件을 강화해 나갈 다는 것이다.

가. 8.15 平和統一構想 宣言

1970年 8月 15日 光復 才 25周年 慶祝辭에서 朴正熙大統領은 北韓에 對해 「더 이상 무고한 北韓同胞들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狂奔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爭,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 수 있는 与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朴大統領은 北韓에 對해 「武裝共匪의 南派등 모든 戰爭挑發行爲를 中止하고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暴力革命에 의한 大韓民國의 전복을 기도해온 從前의 態度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北韓이 이를 受諾할 경우 大韓民國은 人道的 見地와 統一基盤造成에 기여할 수 있으며 南北韓間에 가로놓인 人爲的 障礙를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方案을 제시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宣言했다.

그러나 朴大統領의 平和統一構想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北韓의 全面拒否로 나타났다. 北韓의 黨機關紙인 8月 22日字 「로동신문」의 사설을 통해 「우리는 통일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大韓民國을 전복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北韓을 소위 革命基

地로서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즉 「緊張을 통한 統一」의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것이다.

나. 南北赤十字會談 提議

그로부터 1년 뒤인 1971年8月12日 大韓民國은 人道的 次元에서 4半世紀동안 흩어진 血肉들의 人間的 苦痛을 덜어주고 나아가서 民族的 宿願인 참된 平和統一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를 열망하는 5千萬同胞들의 輿望에 응게 副應하여 1,000萬 離散家族찾기 南北赤十字會談을 大韓赤十字社 주관으로 성립시켰으며 이와 병행하여 朴大統領은 南北韓間의 理解를 增進하기 위해서는 南北赤十字會談과는 별도로 政治的 次元에서의 對話를 提意, 그 결과로 1972年 7月4日의 南北共同聲明의 발표와 이에 근거한 南北調節委員會의 발족을 가져왔다.

다. 7·4 南北共同聲明

「7·4 南北共同聲明」은 統一原則으로서 平和的, 自主的, 民族的 大團結을 들고있다. 國土分斷은 民族의 悲劇이며 國家發展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는 만큼 南北間에 처음으로 統一原則을 合意했다는 사실은 실로 역사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상 統一의 三大原則은 民族의 志向에 일치된 것이며 또 大韓民國의 傳統的인 統一政策과도 합치된 것으로 大韓民國政府가 거둔 커다란 성공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즉 南北交流는 南北韓間에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統一을 원하는 갈라진 民族의 志向을 하나로 합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韓國側에서 불매 閉鎖社會인 北韓의 同胞들이 지금까지의 왜곡된 韓國觀 및 自由世界觀으로부터 韓國의 眞面目을 피부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은 中전의 對外宣傳目的의 음성적 평화공세 방법을 양성화하고자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에 참여 하였으나 곧 그들의 뱃나간 誤算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南北對話는 결코 그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고 希望했던 効果도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진 것이다. 駐韓美軍은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韓半島에서의 平和維持力, 戰爭抑制力 및 軍事力 균형유지에 절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재평가되기 시작했으며 大韓民國의 反共體制는 이완되기는 커녕 國民 일반의 反共意識은 南北對話를 통해 北韓의 의도하는 바가 명료해짐에 따라 더욱 強化되었다.

1972年 11月 韓國의 維新體制의 발족은 北韓이 企圖하던 對南 赤化戰略에 決定的인 차질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北韓同胞들에게 南韓은 전기조차 없는 戰後 폐허상태속에서 거리는 쓰레기장과 같고 國民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인다고 악선전한 교육이 對話以後 왕래에 의한 北韓側代表團의 韓國實情確認으로 因하여 엘리트間的 대립 심화 등으로 北韓은 對話의 계속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결국 현실성이 희박한 선전적 목적에 치중한 의제를 제기함으로써 교착상태의 국면으로 몰고온 것이다.

라. 6·23 宣言

1973年 6月 23日 朴正熙大統領은 平和統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韓半島에 있어서의 평화유지, 南北韓間의 內政不干涉과 相互不可侵, 北韓의 UN을 비롯한 國際機構 참여 不反對,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의 韓國에 대한 門戶開放促求 등을 내용으로 하는 平和統一外交政策 등 7개원칙을 宣言했다.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 北韓의 國際機構參與 목인, 호혜평등원칙에 모든 국가에 대한 門戶開放 등 統一外交政策에 관한 大統領特別宣言에 대하여 國內에서는 물론 西方世界와 일부 中東地域에 있어서도 크게 지지와 환영의 反應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러한 海外反應의 공통점은 이 宣言이 韓半島의 現狀과 범세계적인 和解趨勢와 부합되는 조치로서 平和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外的條件으로서 1969年 7月의 「닉슨·독트린」, 1972年 2月 美-中共頂上會談을 통한 關係改善, 1973年 5月의 美-蘇頂上會談을 통한 平和的協力關係의 擴大, 7月의 日本과 中共의 國交正常化 등 韓半島의 重要利害關係國家의 緊張緩和와 平和維持를 위한 새로운 사태의 발전이 南北關係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주변정세 변화에 당사국이 적극 対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건은 대외적인 挑戰과 試練에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國內政治体制의 정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南北韓間의 競争에 있어서 自信感을 들지 않을 수 없다. 韓國과 같이 國土分斷과 6·25의 動亂, 그리고 兩体制上의 理念的인 차이라는 현실 아래서는 적어도 外交 및 統一政策의 設定 및 전환을 위해서는 國內政治를 강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70年代 以後 韓國의 統一外交政策이 점진적으로 현실주의에 입각한 脫 이데올로기적인 開放外交로 전진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競争의 상대자로서 北韓을 의식한 韓國의 政治的, 經濟的 역량에 대한 추적과 이에 대한 自信感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宣稱에서 「南北關係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바 南北對話의 결실을 얻기까지는 많은 難關이 予見되며 상당한 艱辛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였으며 現實을 直視하고 平和를 이 땅위에 定着시키고 그 바탕위에서 우리의 自由力量의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南北韓間의 전개와 脫 이데올로기적인 開放外交의 추진에는 國內의 經濟能力의 증대와 아울러 政治的인 力量의 培養이 그 기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南北「相互 不可侵協定」締結 提議

다시 1974年 1月 18日 朴大統領은 年頭記者會見에서 北韓에 대해 南北韓不可侵協定の 締結을 제의했으며 骨子로는 ① 南北韓

이 절대로 武力侵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萬天下에 約束할 것.

② 相互内政干涉을 하지 말것.

③ 如何한 경우에도 현 休戰協定の 効力은 存続시킬것 등이 포함되야 한다고 밝히고, 北韓側이 이 協定을 誠實하게 준수하면 戰爭은 예방되고 平和는 유지될 것으로 믿으며 不可侵協定을 맺어놓고 南北統一의 기반을 다지면서 平和共存을 해나가자고 提議했다.

그러나 北韓은 不幸히도 우리의 不可侵協定을 거부하고 나섰다.

그 拒否는 赤化統一의 幻想을 버리지 못한 所致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平和統一에 대한 念願을 포기할 수는 없고 呼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바. 平和統一 3大原則

朴大統領은 1974年 8月 15日 光復29周年 記念辭에서 다시 다음과 같은 平和統一 3大原則을 闡明하였다.

① 韓半島에 平和가 確固히 定着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間에 相互 不可侵協定이 締結되어야 한다.

② 南北韓은 相互間에 門戶를 開放하고 상호 信賴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南北韓은 誠實히 南北對話의 進展을 追求해야 하며 雙方間에 多方面에 걸친 교류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상의 基本原則에 입각하여 公正한 선거관리와 감사하에 土着人口 比例에 의한 韓半島全域에 걸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大業을 成就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의 平和統一 外交政策의 樹立過程을 살펴보았거니와 平和統一 外交政策의 樹立은 지난 30年間 우리 外交의 발전과정을 가장 端的으로 表現해 주고 있다. 이리하여 我國의 外交는 円熟하고 國民的 次元에 입각한 實利外交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사. 結 論

이상과 같이 南北對話에 입하는 大韓民國의 기본입장과 방침은 지난 몇해동안에 걸쳐 朴大統領에 의하여 거듭 천명된 韓國의 시종일관한 平和指向政策에 確固하게 바탕을 두고 있다.

大韓民國의 기본입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7·4 南北共同聲明과 南北雙方間에 이룩된 그밤의 모든 合意事項들에 입각하여 誠意와 忍耐로서 南北對話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있다. 그리하여 南北雙方이 이미 합의한바 있는 對話의 諸目標 「戰爭의 방지와 緊張의 緩和, 相互交流와 協力の 추진에 의한 상호 理解와 信賴의 회복, 보다 安定된 韓半島平和의 確保와 이를 바탕으로한 自主的 平和統一의 추구」를 계속 추구해 나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大韓民國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지금과 같은 平和否定的 姿勢와 對話拒否의 態度를 하루 빨리 버리고 民族的 良心과 良識에 입각하여 對話의 廣場으로 돌아와 南北對話의 두갈래 對話線인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의 기능을 조속히 무조건 정상화시키는데 同意할 것을 促求하고 있으며 또한앞으로도 그러한 北韓의 態度變化를 계속 促求해 나갈 方針이다.

南北韓은 이미 雙方間의 合意에 의하여 두갈래 南北對話의 對話 機構를 정상적으로 作動시키면서 그 안에서 제기되고 논의되어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大韓民國의 기본입장이다.

또한 統一問題에 관한 大韓民國의 기본적인 政策目標은 國家安全의 確固한 보장, 안정된 韓半島平和構造의 確保, 平和의 方法에 의한 統一의 추구이다. 大韓民國의 國家安保가 確保되지 않을때 韓半島의 安定된 平和는 기대할 수 없으며 平和가 먼저 確保되지 않을때 진정한 平和統一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南北對話는 現實認定의 기초 위에서 출발되어야 하겠다. 對話의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南北雙方이 相對方의 體制라는 存在하는 現實을 否定하고 暴力에 의하여 相對方의 體制를 顛복하려는 일체의 企圖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으며 그러한 뜻에서 南北對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大前提로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우선 이른바 「南朝鮮革命」이라고 일컫는 暴力에 의한 對南赤化企圖를 名實相符하게 포기하고 統一까지의 過渡的 暫定措置로 大韓民國이 提議하고 있는 南北韓의 平和定着을 받아들여야 하겠다.

이와같은 韓國의 平和統一基本原則이야말로 우리의 國際環境속에서 武力이 아닌 平和的인 方法으로 分斷된 祖國을 統一할 수 있는 가장 現實的이면서도 實現性있는 길이라고 確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平和를 定着시키고 그 平和의 바탕 위에서 統一을 이룩하려는 先平和 後統一의 政策基調를 지금까지 確固하게 維持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를 변함없이 一貫性있게 계속 追求해 나갈 것입니다.

2. 關係 資料

朴大統領 光復 25 周 慶祝辭서 平和的統韓構想 闡明

親愛하는 國內外 5 千萬 同胞여러분!

오늘은 우리民族이 比할데 없는 歡喜속에서 맞이했던 祖國光復,
그날부터 꼭 4 半世紀가 되는 날입니다.

25 年前 全國 坊坊曲曲의 거리 거리에서 太極旗의 물결을 翻弄
으며 自由解放萬歲의 歡呼聲을 소리높이 외치던날, 우리 은 거레는
정녕 티끌만한 私心도 打算도 없는 純粹한 愛國愛族의 마음으로
다함께 우리 民族 再起의 出發을 기뻐하였고, 우리 歷史의 새로운
榮光을 다짐 하였던 것입니다.

- 抑壓과 隸屬에서 벗어나고 잃었던 祖國을 되찾아,
- 다시는 祖上들이 당했던 不遇한 國地를 되풀이 하지 않으리
라 굳게 盟誓하며,
- 새로운 繁榮의 民族國家를 建設해 보겠다는 푸른 꿈을 펼쳐
보던,

그날의 빅찬 感激과 불타오르던 情熱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될 不滅의 烽火가 아날 수 없습니다.

그날로부터 於 焉 25 年이 경과하였습니다.

25 年이란 歲月은 한 人間이 幼兒期로부터 少年期와 青年期를
넘어서 이제 그 完熟을 눈앞에 바라보는 「한 世代」에 해당하는

時間인 것이며, 이는 또한 한 民族 한 國家에 있어서도 그간의 成長度를 엄숙히 評價해 보아야 할 歷史上의 里程碑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成年 韓國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中外에 크게 誇示하고 있는 이 時点에서 다시 한번 光復節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感懷는 자못 無量한 바 없지 않습니다.

• 지난 25年間の 光復 韓國史는 한마디로 말하여 드물게 보는 [激動의 時期]였고 苦難과 試練의 連續이었읍니다.

◎ 光復의 感激과 歡喜가 國土分斷의 衝擊과 不幸속에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는가 하면,

◎ 繁榮의 希望과 期待는 北傀가 挑發한 慘酷한 戰亂속에 한 조각 虛空에 뜬 구름처럼 흩어져버렸고,

나아가서는 政府樹立以後의 混沌과 停滯는 급기야 두차례의 政治的 激動의 소용돌이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읍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爭取한 것이 아니라 他力에 의하여 주어질 光復을 분간 消化할만한 主体的 力量을 갖추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試練과 진통은 避할 수 없었던 必然의 결과였다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苦難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읍니다.

우리는 悲劇을 당하여 결코 좌절되지 않았으며 逆境앞에 끝내 屈하지 않았읍니다.

長久한 民族史를 통하여 數없이 많았던 内外의 變患을 강인한

意志와 拳族的인 抗争으로 이겨내고 祖国의 獨立을 保全하여 왔던
굳세고 억센 우리 民族本然의 潛在的 力量이 試鍊克服의 途程에서
서서히 그 빛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싹터 오른 民族的 目覺이 凝結하여 잠자고 있던 生命力
과 創造力에 点火되어 民族中興의 前進隊列을 整備한 歷史的 轉換
점을 이룩한 것이 바로 지난 60年代였습니다.

그로부터 8, 9年 우리들은 祖国近代化 課業을 위하여 온갖 努
力を 기울여 왔으며, 많은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온세계는 50年代의 動亂韓國이 이제 新生國發
展의 模範國家로 登場하였다는 새로운 認識을 가지고 우리民族에
대해 羨望과 敬愛의 눈초리로 쳐다 보겠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값있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거둔 外形的 成果보다도 이것을 이룩하는 過程에서 우리
民族의 無限한 底力을 再發見하고, 우리의 意志, 우리의 努力으로
어떠한 큰 일도 이룩할 수 있다는 自身과 證거를 일깨우게 되었
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0年代에 着手한 中興課業을 기필코 完遂해야 할
使命의 70年代에 들어 섰습니다.

새로운 4半世紀의 歷史의 章이 시작되려는 이순간 우리 모두가
다시는 지난날의 歷史的 前轍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겠다는 決意와
우리 後孫들에게는 보람찬 遺産을 傳承해 주어야 한다는 使命感을
加一層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오늘 光復 卅 25 周年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겨레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가슴아프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國土分斷의 悲劇입니다.

統一을 向한 民族的 悲願은 지난 4 半世紀 동안 하루도 우리의 腦裡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으나, 한편 統一의 展望은 수많은 難關과 途路에 가로막혀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原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金日成과 그 一黨의 民族叛逆集團이 北韓 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狂信的이며, 好戰的인 共產集團은 祖國光復의 첫날부터 全韓半島를 暴力으로 赤化하기 위해 始終一貫 狂奔해 왔습니다.

6.25 南侵의 慘酷한 民族相殘에 이어 休戰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 천 8 백여 건이 넘는 武力挑發을 자행해왔고 최근에는 무수한 무장공비를 南派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實証입니다.

정녕 金日成과 그 徒黨은 마땅히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戰犯者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당은 言必稱 平和統一이니 南北協商이니 聯邦制니 交流니 하는등 破廉恥한 常套的 선전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北傀의 底意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이미 青天白日下

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戰犯行爲와 긴장 조성의 責任을 전가해보려는 적반하장의 凶計인 것이며,

◎ 武装共匪南派를 偽裝隱蔽하고 素朴한 일부사람들을 현혹함으로써 感像的 統一論을 誘發해 보려는 奸邪한 術策인 것이며,

◎ 國際輿論의 誤導을 노리는 野卑한 속셈인 것입니다. 이 虛偽에 찬 北傀의 作態를 믿는 사람은 이 地球上에 한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斷言합니다.

무릇 共產主義의 政治体制는 基本人權의 유린과 鉄의 紀律에 의지한 全體主義的 一黨獨裁입니다.

그중에서도 北傀 金日成体制는 같은 共產圈內에서조차도 반쪽의 對象이 되고 있는 典型的인 極左冒險主義와 歷史偽造를 일삼는 個人神格化가 판치는 閉鎖社會입니다.

오늘의 北역땅은 그러한 專橫과 恐怖가 휩쓰는 가운데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하나의 兵營으로 化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듯 歷史와 民族, 天倫과 良心을 外面한 凶惡한 武力挑發集團과 대치하여 統一問題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狀況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民族의 悲願인 祖國統一의 難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國土統一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民族의 至上命命이라 하더라도 同族의 流血을 強要하는 戰爭만은 피하여야 하며,

統一의 길이 아무리 險難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忍耐와 最大限의 良識을 發揮하여 平和的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同時에 우리는 金日成一派의 戰犯集團이 끝내 武力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리지 못하고 暴力的인 侵略을 敢行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擧退할 수 있는 「힘의 培養」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點을 깊이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國民 여러분!

나는 이미 數次에 걸쳐 統一勢力의 本格化는 70年代 後半期에나 可能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 時機에 이르면 우리의 主体的 力量의 充實과 國際的 與件의 成熟으로 統一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北韓의 閉鎖的인 社會體制로 時代의 進運인 自由化 물결에 의해 스스로 變質될 것이며, 또 우리의 自由의 힘이 北녘까지 넘쳐 흐를 것을 確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時機를 展望하면서, 나는 光復4半世紀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平和統一의 基盤造成을 위한 接近方法에 관한 나의 構想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先行條件이 있습니다.

即 北傀가 지금과 같은 侵略的이며 挑戰的인 行爲를 계속하고 있는 即,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이것은 假面이요, 偽裝이요, 欺瞞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緊張狀態의 緩和없이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에의 接近은 불

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보장하는 北傀의 명확한 態度表示와 그 實踐이 先行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北傀는 武装共匪南派 등의 모든 戰爭挑發行爲를 即刻 中止하고 所謂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暴力革命에 의한 大韓民國의 顛覆을 企圖해온 從前의 態度를 完全히 拋棄하겠다」하는 點을 明白하게 内外에 宣稱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傀가 受諾, 實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定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 明白하게 確認될 경우에는 나는 人道的 見地와 統一基盤造成에 寄與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 보다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 施行할 用意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北傀가 韓國의 民主統一獨立과 平和를 위한 유엔의 努力을 認定하고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受諾한다면,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傀가 參席하는 것도 굳이 反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構想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北傀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北韓同胞들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罪惡을 犯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争,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수 있는 條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証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争에 나설 用意는 없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親愛하는 国内外 同胞여러분 !

금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에 門戶를 開放한 19世紀後半의 開化期로부터 近百年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世紀, 우리民族은 落後와 隸屬, 戰亂과 混沌이 겹친 受難의 歷程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民族은 그 試鍊을 용케도 참고 이겨냈으며,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中興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마지막 中興의 機會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記憶해 두어야 할 것은 오늘로써 始作되는 앞으로의 4半世紀를 넘기면 今世紀의 末이 된다는 것입니다.

西紀2千年頃の 세계와 그속에서 우리 大韓民國이 서있을 座標가 어디이겠는가 하는 것을 正確하게 予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의 우리 祖國은,

- 國土統一을 이룩한지 이미 오래된 強力한 民族國家로서,
- 온 國民이 다함께 繁榮을 謳歌할 수 있는 豊요한 先進福祉 國家로서,
- 世界史의 主流에 堂堂히 參與하고 寄與해나가는 보람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着實한 그 準備期間인 것입니다.

1970年代는 이렇듯 過去와 未來를 연결하는 우리의 近代民族史의 途程에서 民族中興의 成敗를 가름하는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는 時期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年代의 中興課業을 成就하는 与否는 우리의 힘을 어느만큼 「生産的」인 目標에 集結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民族의 團結, 힘의 集中, 그것은 정녕 中興의 成敗를 左右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当面課題인 自立經濟와 自主國防을 이룩하는 것도 民族의 團結이며, 民族의 念願인 国土統一을 成就하는 것도 우리의 團結된 힘입니다.

國民여러분!

25年前 8.15에 謳歌했던 그 感激과 歆喜를 앞으로 기어이 成就할 祖国統一의 그날, 보다 더 력차게 노래할 수 있도록 團結하여 前進합시다.

非武装地帶 原狀復旧 및 平和利用을 위한 유엔軍側

首席代表 페릭스 M 로저스少將의 提案

1971年 6月 12日

軍事停戰委員會 才317次本會議

費下는 軍事停戰委員會 才315次 本會議에서 非武装地帶内の, 요새화된 陣地와 不法的인 武器에 관한 문제를 擴大 討議할 것을 提議하였다. 바로 이 문제는 여러 해 동안 國際聯合軍 司令部의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가 되어 왔으며 이제 그 해결이 절실한 문제

가 되어 있다.

貴下도 알다시피 休戰協定の 立案者들은 双方의 敵對軍隊間의 平和的인 緩衝地帶로서 非武装地帶를 설정하였다. 바로 그 깊은 의도는 敵對行爲의 再發을 초래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非武装地帶에는 적당한 시기에 오로지 民間人만이 거주하게 되고 民間인에 의하여 관리될 것이 想定되었다. 이런 생각을 입증하기 위하여 本人은 貴側 交渉團의 一員이 1953年 「이곳은 中立地帶이며 따라서 이 地帶에 武装軍人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秩序維持를 위한 嚮察은 있어야 한다」고 한 發言을 인용 한다. 이러한 論理는 交渉代表들의 總意로 表現되었으므로 休戰協定 才1條는 非武装地帶內의 民間行政 및 救護活動을 위한 規定을 挿入시키고 있다. 非武装地帶의 平和的 性格을 보장하기 위하여 才1條는 또한 非武装地帶內에서 一切의 軍事行動을 금지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 그 規定은 「双方은 모두 非武装地帶內에서 또는 非武装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装地帶를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國際聯合軍司令部는 1953年 同協定 才1條에 구현된 의도의 文案과 精神을 준수할 것을 誓約하였다. 이 誓約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有効한 것이다. 本人은 오늘, 바로 이점에 관해 誤解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리기 위하여 休戰協定 才1條의 遵守에 대한 國際聯合軍司令부의 현실적인 努力을 재확인한다.

本人은 非武装地帶의 취지와 목표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休戰協定

의 諸規定에 관하여 오랫동안 면밀히 檢討하여 왔다. 本人은 雙方이 현재 어떤 具體的인 措置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結論에 이르렀다. 本人이 구상한 措置는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非武装地帶의 原狀復旧를 가져올 것이다. 이 目標을 성취하기 위하여 本人은 다음과 같이 提案한다.

즉 雙方은 진정한 非武装地帶의 의도에 獻身할 것을 재천명한다. 이 점은 本人이 國際聯合軍司令部側을 대표하여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本人은 雙方이 이러한 의도를 넘어서서 고든 韓國人에게 利益이 될 平和的인 목적으로 非武装地帶를 轉換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진지한 協商에 들어갈 것을 提案한다. 本人은 非武装地帶로부터 모든 軍人과 武器를 撤収시킬 것, 모든 요새화된 陣地와 軍事施設을 破壞할 것 및 非武装地帶로 規定된 현재의 地域을 武装間諜의 위협을 받지 않는 平和的인 民間活動을 위하여 이용할 것을 提案한다.

이 地圖를 보라. 非武装地帶 中心部에 있는 한 地域에 本人이 붉은 표시를 해놓았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 地域은 軍事分界線 표지물 0682 부근에서 軍事分界線 표지물 0727에 이르는 약 6 千㎡에 걸친 곳이다.

다음 地圖는 붉은 표시를 한 지역을 擴大한 것으로 雙方의 施設의 位置를 보다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國際聯合軍司令部는 이들 施設 및 여기에 배치된 軍人들을 非武装地帶로부터 撤収시킬 것과 平和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위협을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本人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狀況들이 앞으로의 交渉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함을 제의한다.

첫째, 共同監視組 才三班 및 共同監視組 才四班이 (지도를 가리키며) 지도에 보이는 바와 같이 軍事分界線 표지물 〇七〇八 및 〇七一五에서 각각 同時에 만난다. 이 모임에 앞서서 雙方의 모든 軍人들은 지정된 지역으로 철수를 마친다. 共同監視組는 武装하지 않는다. 이들은 조사될 地域에 익숙한 4명 이하의 非武装要員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共同監視組 才三班은 南大川以西 軍事分界線 표지물 0682까지 非武装地帶의 北쪽 半을 調査한다. 동시에 共同監視組 才四班은 南大川 以東 軍事分界線 표지물 〇七二五까지 非武装地帶의 南쪽 半을 調査한다. 이들의 조사가 끝나면 相互合意할 수 있는 시기에 兩共同監視組는 각기 出發地点으로 돌아가 이들 지역의 나머지 半을 조사한다. 共同監視組 才三班은 南大川 以西 軍事分界線 표지물 〇六八二까지 非武装地帶의 南쪽 半을 담당하고 共同監視組 才四班은 南大川 以東 軍事分界線 〇七二五까지 非武装地帶의 北쪽 半을 담당한다. 조사가 끝나면 兩共同監視組는 모든 요새화된 障地 초소 지뢰지대 철조망 및 기타 人造 通行妨害物의 설명과 위치를 포함한 報告書를 軍事停戰委員會에 제출한다.

둘째, 軍事停戰委員會는 그 다음에 모여서 이 報告書를 토의하고 1개월 기간 이내에 破壞되거나 제거함이 적당하다고 보고된 項目을 조정한다. 그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시기에 共同監視組 才

三班 및 才四班이 当該 地域에서 그 지역이 完全히 무장해제 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才二次 調査를 실시한다. 발견된 사항에 관한 報告書를 작성하여 軍事停戰委員會에 제출한다.

세째, 軍事停戰委員會는 그 다음에 모여서 이 報告書를 토의하고 이미 무장해제된 지역에 인접한 새 지역으로 調査를 擴大하기 위한 조정을 한다.

才1次 지역을 무장해제하는데 사용된 바와 유사한 과정이 새로운 地域을 무장해제하는데 적용된다. 이 과정은 非武装地帶 全域이 武装解除를 끝낼 때까지 반복된다.

네째, 어떠한 武器나 軍人도 非武装地帶의 무장해제된 지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데 合意한다. 그러나 어느 측이나 민간인 노동자가 평화적인 민간활동을 위하여 개간된 땅을 復元하려고 무장해제된 地域에 들어가는 것은 許用한다. 警備目的上 이 地域에 民警隊가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되 그들도 민간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무장하지 않는다. 民警隊는 이 지대의 양쪽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軍事分界線을 존중하고 軍事停戰委員會의 承認 없이는 아무도 軍事分界線을 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이 제안을 보완할 필요는 細部措置는 秘書長級 會議에서 해결될 수 있다.

이 提案은 그 의도되었던 목적대로 非武装地帶를 復旧시키기 위한 진지한 努力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提案은 非武装地帶에의 자유로운 接近 및 그 안에서의 移動이 「民間人の 非武装地帶出入」을 규정한 1953年8月3日의 補充協定 및 休戰協定 才9項에 규

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休戰協定の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제안은 休戰協定에 의하여 설치된 諸機構를 당초 예정된 役割에 이바지하도록 이용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韓半島에서 緊張을 緩和하기 위한 國際聯合軍司令部의 성실한 試圖이다. 이제 오로지 필요한 일은 貴側 司令官이 非武装地帶의 武装解除 및 民間利用을 위한 開發許容에 同意하는 것이다. 만일 이 同意가 나타나게 된다면 本委員會는 韓國民이 平和와 統一을 향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役割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本人은 貴下에게 이 제안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促求한다.

崔 赤十字社總裁聲明 全文

1971.8.12. 提議

4半世紀에 걸친 南北間의 장벽은 온갖 民族悲劇의 원천이며 특히 南北으로 갈린 離散家族들의 비극은 금세기 인류의 象徴的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는 人類愛와 재난의 구호를 위한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赤十字精神을 구현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 가슴아픈 일이다. 물론 이러한 離散家族의 悲劇은 南北間의 장벽이 해소되므로써 完全히 종식될 것이나 이것이 단시일내에 이룩되기 어려운 현실하에 적어도 1千萬 南北離散家族들의 실태를 確認하고 이들의 소식을 알려주며 再會를 알선하는 「家族

찾기 운동]만이라도 우선 전개해야겠다. 그러므로 나는 大韓赤十字社를 대표하여 赤十字精神에 따라 南北間의 순수한 인도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北韓赤十字社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첫째, 南北間의 家族찾기운동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 南北赤十字社 대표가 한자리에 마주앉아 회담할 것을 제의한다.

둘째, 本會談의 절차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10월안으로 제네바에서 予備會談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해 北韓赤十字社가 放送, 通信網 또는 國際赤十字社를 통해서나 여타의 가능한 方法으로 그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을 希望한다. 우리는 北韓赤十字社가 赤十字精神과 그 基本任務에 입각 이러한 순수한 提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확신한다.

南北共同声明의 發表

南北韓은 1972年 7月 4日 오전 10時 서울과 平壤에서 南北共同声明을 同時 發表했다. 南北共同声明에는 「서로 上部의 뜻을 받들어」 大韓民國側을 대표한 李厚洛, 北韓側을 대표한 金英柱 兩者가 공동으로 署名했다. 雙方은 이날 「南北直通電話 가설 및 운영에 관한 合意書」도 아울러 發表했는데 두 合意文件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南北共同声明〉

最近 平壤과 서울에서 南北關係를 改善하며 갈라진 祖国을 統一하는 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會談이 있었다.

서울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1972年 5月 2日부터 5月 5일까지 平壤을 訪問하여 平壤의 金英柱 組織指導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으며 金英柱 部長을 代身한 朴成哲 才2 副首相이 1972年 5月 29日부터 6月 1일까지 서울을 訪問하여 李厚洛 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다.

이 會談들에서 雙方은 祖国의 平和統一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共通된 念願을 안고 虛心坦懷하게 意見을 交換하였으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는데서 큰 成果를 거두었다.

이 過程에서 雙方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南北 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緊張의 高潮를 緩和시키며 나아가서 祖国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들에 完全한 見解의 一致를 보았다.

1. 雙方은 다음과 같은 祖国統一原則들에 合意를 보았다.

첫째,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적으로 解決하여야 한다.

둘째,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拠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세계,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여야 한다.

2. 双方은 南北 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爲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装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적인 措置를 取하기로 合意하였다.

3. 双方은 끊어졌던 民族的 連繫을 回復하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南北 사이에 多面的인 諸般交流를 實施하기로 合意하였다.

4. 双方은 지금 은 民族의 巨大한 期待속에 進行되고 있는 南北 赤十字會談이 하루빨리 成事되도록 積極 協調하는데 合意하였다.

5. 双方은 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 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直接,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爲하여 서울과 平壤 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놓기로 合意하였다.

6. 双方은 이러한 合意事項을 推進시킴과 함께 南北 사이의 諸般 問題를 改善 解決하며 또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李厚洛 部長과 金英柱 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하기로 合意하였다.

7. 双方은 以上の 合意事項이 祖國統一을 一日千秋로 渴望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念願에 符合된다고 確信하면서 이 合意事項을

誠實히 履行할 것을 온 民族앞에 嚴肅히 約束한다.

서로 上部의 뜻을 받들어

李 厚 洛 金 英 柱

1972年 7月 4日

<南北 直通電話架設 및 運營에 關한 合意書>

1. 直通電話의 設置目的

祖國의 平和統一을 自主적으로 突現하기 爲한 課業과 其他 南北間에 提起되는 問題 및 不意의 事態에 對備하는 問題를 直接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爲하여 서울-平壤間 直通電話 (以下 直通電話라고 함)를 設置 運用한다.

2. 直通電話器 設置場所

直通電話器는 서울에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의 事務室 그리고 平壤에는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의 事務室에 各各 設置한다.

3. 運用時間

直通電話는 日曜日과 公休日을 除外하고 每日 9時부터 12時까지 16時부터 20時까지의 사이에 運用하며 雙方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以上에 指定된 時間과 날자에 拘碍됨이 없이 事전에 날자와 時間을 設定하여 運用한다.

4. 通話者

直通電話의 通話者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한다. 서울에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그가 指定한 3名으로 하며 平壤에서는 金英柱 組織指導部長과 그가 指定한 3名으로 한다.

5. 試驗通話

直通電話의 異常有無를 確認하기 爲하여 才3項에 指定된 날의 10時에 試驗通話를 한다.

6. 故障修理

直通電話에 異常이 있을 때는 板門店 常設連絡事務所를 通하여 이를 通報하고 雙方은 各己 自己 管轄地域을 責任지고 修理하며 板門店 共同警備區域内の 故障은 兩側이 共同으로 修理한다.

7. 秘密保障

雙方은 通話內容의 秘密을 嚴格히 保障한다.

8. 修正 또는 補充

本 合意書의 內容을 修正 또는 補充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雙方의 合意에 依해서만 할 수 있다.

9. 有効期間

本 合意書는 서로 署名하여 交換한 때로부터 發効하며 雙方의 合意에 따라 廢棄하기 前에는 繼續 有効하다.

서 울

平壤

中央情報部長

李厚洛

組織指導部長

金英柱

1972年 7月 4日

1972年 11月 2日부터 4일까지 平壤에서 열린 才2次 共同委員長會議에는 大韓民國側에서 李厚洛 共同委員長 外로 張基業 IOC

委員(前副總理), 崔圭夏(大統領特別補佐官(前外務長官)), 康仁德(中情才9局長), 鄭洪鎮(中情協議調整局長) 등 4名이 補佐團으로 참가하고 그 밖에 10名의 수행원과 10명의 기자가 수행했다. 北韓側에서는 朴成哲이 金英柱의 代理資格으로 나오고 柳章植, 李景錫(內閣參事), 韓雄植(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責任指導員), 金德賢(韓雄植과 같음) 등이 會議에 참가했다.

才2次 共同委員長會議때까지의 會議에 北韓側 主役은 여전히 金日成 자신이었다. 公式會議은 11月2日과 3日 하오에 각기 한 차례씩 있었으나 실질적인 會議은 11月3日 오전 雙方의 會議 참가자들이 「內閣首相執務室」로 金日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는 그 내용의 일부 文面에 관해 雙方間에 끝내 親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아 3日 밤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결국 金日成의 介入에 의하여 北韓側이 일부 表現을 양보함으로써 4日 오전에야, 겨우 合意가 이루어지고 雙方의 서명을 거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雙方은 또 이 會議에서 大韓民國側의 提議에 따라 1972年 11月 11日 零時를 기해 ①正規放送에 의한 상호 誹謗放送 ②休戰線에서의 확성기에 의한 心理戰放送 ③相對側 地域에 대한 선전비라의 투입·살포 등을 중지하기로 合意했다.

會談席上에서 金日成은 南北韓聯邦制 실시문제를 거론, 大韓民國側에서는 장차의 검토대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大韓民國側은 北韓

側에 대해 「統一革命黨」事件과 「統一革命黨의 목소리」放送 등을
例擧하면서 北韓側이 對話 시작 후에도 對南暴力 赤化革命路線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이의 是正을 要求했다. 그러
나 北韓側은 「統一革命黨」이 北韓과는 상관없는 「大韓民國 内部
의 문제」라고 強弁하면서 오히려 大韓民國에 대해 「反共政策의
拋棄」를 요구했다.

〈合 意 書〉

雙方은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合
意한다.

1. 南北調節委員會는 1972年7月4日附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推進하고 南北 사이의 關係를 改善 發展시키며 各分野에서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 등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2.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가.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나.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 사이의 廣範한 政
治的 交流를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
障한다.

다. 南北 사이의 經濟, 文化的 및 社會的 交流와 힘을 합쳐 같
이 事業하는 등의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
다.

라. 南北 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대치 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마. 對外活動에서 南北이 共同步調를 取하며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긍지를 宣揚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3. 南北調節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가. 南北調節委員會는 雙方에서 各各 共同委員長과 副委員長 1名, 幹事委員 1名, 委員 2名으로 構成한다. 委員數는 必要에 따라 增加시킬 수 있다.

共同委員長은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으로 한다.

副委員長과 幹事委員 및 委員은 長官(相) 또는 次官(副相) 級으로 하되 事前協議를 거쳐 各各 雙方 共同委員長이 任命한다.

나. 南北調節委員會안에 幹事會議을 둔다.

幹事會議는 雙方 共同委員長の 委任에 依하여 南北調節委員會의 休會期間에 提起되는 諸般問題 등을 協議, 決定하고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幹事會議는 雙方幹事委員과 各各 幹事 2名으로 構成한다.

다. 南北調節委員會안에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分科委員會를 둔다. 各 分科委員會는 南北調節委員會 事業이 進陞되는데 따라 設置하며, 그 機能과 構成은 雙方的 合意에 依하여 따로 規定한다.

라. 南北調節委員會 共同事務局을 板門店에 둔다.

共同事務局長은 雙方이 各各 1名씩 任命하며 그 밑에 必要한 數의 人員을 둔다.

4. 南北調節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運營한다.

가. 南北調節委員會는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進行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必要에 따라 板門店에서도 할 수 있다.

나. 南北調節委員會 會議는 2~3個月에 1次, 幹事會議는 1個月에 1次 進行하며, 이밖에 雙方의 合意에 따라 臨時會議을 開催할 수 있다.

다. 南北調節委員會는 公開會議 또는 非公開會議로 한다.

라.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와 幹事會議에는 雙方의 合意에 따라 必要한 數의 專門人員들과 共同事務局 委員들을 參加시킬 수 있다.

마. 南北調節委員會의 最終合意는 雙方 共同委員長들이 合意文件에 署名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合意事項은 雙方의 合意에 따라 共同事務局을 通하여 同時에 發表한다.

바. 南北調節委員會 運營細則은 따로 規定한다.

5. 이 合意書는 雙方의 合意에 依하여 修正, 補充할 수 있다.

6. 이 合意書는 雙方이 署名하여 交換한 때로부터 効力을 가진다.

1972年 11月 4日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

李 厚 洛 部長

라. 委員會의 進行

1) 委員會 本會議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共同委員長
金英柱 部長을 代理하여

朴 成 哲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들의 才1次會議 共同報道

(72.10.12.中放 2)

1972年10月12日 板門店에서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共同委員長을 代身한 朴成哲 才2副首相과 서울側 共同委員長인 李厚洛 中央情報部長 사이에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들의 才1次會議가 있었

다.

會議에는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된 以後의 南北間의 諸問題를 合意하고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을 再確認하였다.

雙方은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誠實하게 履行함으로써 南北 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 하며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問題들을 眞摯하게 討議하였다.

雙方은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들의 才2次會議를 1972年10月下旬에 가지기로 合意하였다.

1972年 10月 12日 板 門 店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들의 才2次會議에 關한 共同報道

(72.11.4.中放 2)

1972年 11月2日부터 11月4일까지 平壤에서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들의 才2次 會議가 進行되었다.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인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그
一行은 1972年 11月3日 金日成首相을 禮訪하고 談話를 나누었다.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들의 才2次會議에는 平壤側에서 共同
委員長인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을 代身한 朴成哲 才2副首相과 朝鮮
勞動黨 中央委員會 柳章植 組織指導部 副部長兼 對外事業部長, 이경
석 內閣參事,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直屬 韓雄植 責任
指導員,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直屬 金德賢 責任指導員
이 參加하였으며 서울側에서는 共同委員長인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張基榮 前 副總理, 崔圭夏 大統領特別補佐官, 中央情報部 康仁德局長
中央情報部 鄭洪鎮局長이 參加하였다.

會議는 하루 빨리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
을 이룩하려는 念願으로부터 出發하여 眞摯한 民族愛의 분위기서부
터 協議를 進行한 結果 서로 理解를 깊이하고 一連의 問題들을
풀어 나가는데서 前進를 이룩하였다.

雙方은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따라 北과 南사이의 各 分野에
걸쳐 서로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할데 대하여 意見一致를 보았다.

會議에서 雙方은 다음과 같은 問題들에 合意를 보았다.

첫째, 雙方은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問題에 대하여 意見一

致를 보았으며 이에 따라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合意書에 署名 交換하였다.

둘째, 雙方은 서로 誹謗中傷하지 말데 對한 南北共同聲明의 條項에 따라 1972年 11月 10日 零時를 期하여 對北 對南放送과 軍事分界線上에서의 高聲器에 依한 對北 對南放送, 相對方 地域에 對한 비라 撤布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1972年 11月 4日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들의 第3次會議

李 서울側 共同委員長과 朴成哲 平壤側 共同委員長 代理는 서로 「이번 會議에서 合意事項은 없었지만 會議自體의 의의는 컸다」고 이번 會議를 評價했다. 한편 이에 앞서 南北調節委 第3次會議 두번째 會議가 13日 오후 3時부터 2時間동안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두번째 會議에서는 ①7.4 共同聲明精神과 기타 南北間의 合意事項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제 ②分科委員會 構成方法 ③調節委의 實務機能을 정비하는 문제 등에 關해 広範圍하고도 진지한 意見交換을 했다고 李東護 서울側 代弁人이 발표했다.

李代弁人은 「이날로써 會議는 모두 끝났으며 會議에서의 合意與否에 對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 상보다 장시간에 걸쳐 열린 이날 會議에서는 7.4 共同声明精神의 尊重問題 등에 대한 서로간의 立場을 밝혔을뿐 별다른 合意點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才 28 次 「유엔」總會 「合意声明」

「유엔」總會 의장은 韓國問題에 관한 두개 決議案의 제안국들과 協議한 결과 이 두 決議案을 이번 「유엔」總會에서는 표결에 회부치 않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 또한 의장은 다음과 같은 声明을 내도록 承認받았다. 「유엔」은 南北韓이 1972年 7月4日 다음과 같은 3個 再統一原則을 마련한 7.4 共同声明을 발표한 것에 만족하며 이를 주시한다.

(1) 韓國의 統一은 外勢에 依存이나 干涉없이 自主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韓國의 統一은 武力에 의하지 않고 平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韓國의 國民的 大團結이 促進되어야 한다.

「유엔」은 南北韓이 對話를 계속하고 7.4 共同声明精神에 입각해서 自主적이고 平和적인 韓國 再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多方位적인 交流와 協力을 실시하기를 促求한다.

「유엔」總會는 「유엔」韓國統一復興委員團(언커크)의 즉각 해체를 결의한다.

6·23 平和統一 外交宣言

親愛하는 5千萬 同胞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 동안 推進해 온 南北對話의 經驗과 國際情勢의 推移에 비추어 民族의 宿願인 祖国統一의 与件을 實質적으로 改善하기 위한 우리의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内外에 闡明하고자 합니다.

才2次 世界大戰後 우리는 解放이 되었으나 우리의 思想에 反하여 国土는 兩斷되고 民族은 分裂되었읍니다.

当初 日本軍의 降伏을 받기 위한 軍事的 境界線이라고 하던 38線이 그 後 鉄의 帳幕으로 변하고, 南과 北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모든 分野에 걸쳐서 完全히 遮斷되어 버렸읍니다.

그 동안 美蘇共同委員會가 開催되어 38線의 解消와 統一民主政府 樹立을 위한 交渉이 있었으나, 美蘇間의 根本的 對立으로 失敗에 돌아가고 結局 韓國問題는 國際聯合에 提起되었던 것입니다.

1947年 才2次 國際聯合總會는 南北韓을 통한 自由로운 總選舉의 實施를 決議하고, 이를 위해 臨時韓國委員會를 派遣하였읍니다.

그러나 北韓의 拒否로 南韓에서만 自由選舉가 實施되어 1948年 8月15日,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고 國際聯合에 의하여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 받게 된 것입니다.

1950年 6月 25日, 北韓共產軍의 不意의 侵略으로 因한 韓國動亂으로 無數한 同胞가 生命을 잃고 全國土는 焦土化되었으며, 3年

間의 戰亂 끝에 休戰은 成立되었으나 分斷은 繼續되고 統一은 遂遠해졌읍니다.

나는 이 分斷으로 말미암은 同族의 苦痛을 덜고 平和統一의 基礎를 造成하기 위하여 1970年 「8.15宣言」에서 南北韓間의 緊張緩和를 促求하였읍니다. 그 다음 해 8月 12日 우리側은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였으며, 昨年 7月 4日에는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共同聲明을 發表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南北對話는 시작되었읍니다. 그러나 近 2年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成果는 우리 期待와는 距離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容易하고 實踐 可能한 問題부터 하나씩 解決해 나감으로써 南北間의 障壁을 漸次 除去하고, 具體적인 実績을 통해서 相互間의 不信을 信賴로 代替해 나가는 것이 對話를 生産적으로 運營하는 길이며, 平和統一을 成就하는 지름길이라고 主張해 왔읍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不信要素를 남겨 둔채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을 위태롭게 할 軍事 및 政治問題의 一括 先決을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北韓側은 統一을 위한 南北對話의 進行中 밖으로는 事實上 祖國의 分斷을 固定化시키는 行動을 繼續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南北關係의 現狀으로 보아 우리가 期待하는 바 南北對話의 結實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難關이 予見되며, 상당히 긴 時日이 所要되리라고 判斷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狀態가 그대로 放置된다면 結果적으로 不信

의 深化와 緊張의 高潮마저도 憂慮되는 바입니다.

한편 最近의 國際情勢는 才 2次世界大戰 後의 冷戰時代가 끝나고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列強들의 勢力均衡으로 平和共存을 維持하려는 것이 그 主된 潮流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間 이 地域에 있어서의 一連의 周邊情勢의 發展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國土統一이 短時日內에 成就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國際情勢는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問題를 提起하고 있습니다. 卽 祖國統一이라는 民族至上의 念願과 目標을 國際情勢의 現實 속에서 어떻게 追求할 것인가의 問題입니다.

親愛하는 5千萬 同胞 여러분!

우리는 客觀的 現實에 대하여 能動的으로 對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祖國統一을 國內외의 現實 속에서 實現하는 賢明하고도 確固한 方案을 樹立하고 이를 강인하게 追求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現實을 直視하고 平和를 이땅에 定着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自主力量으로 統一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政策을 宣言하는 바입니다.

1.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우리 民族의 至上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계속 傾注한다.
2.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干涉

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南北共同声明의 精神에 입각한 南北對話의 具體的 成果를 위하여 誠實과 忍耐로써 계속 努力한다.

4. 우리는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國際機構에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5. 國際聯合의 多數 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國際聯合 加入 前이라도 大韓民國 代表가 參席하는 國聯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北韓側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는 않는다.

6.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

7. 大韓民國의 對外政策은 平和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既存 紐帶關係는 이를 더욱 鞏固히 해나갈 것임을 再 闡明한다.

나는 以上에서 밝힌 政策 中 對北韓 關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過渡的 期間 中의 暫定措置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 하여 둡니다.

親愛하는 南北同胞 여러분!

나는 우리 祖國이 처해 있는 오늘의 內外情勢를 冷澈히 評價할

때 이 길만이 緊張緩和의 國際潮流 속에서 民族의 威信과 矜持를 維持하면서 祖國의 平和統一을 自主적으로 成就하는 지름길이라고 確信합니다.

슬기롭고 勇敢한 民族 앞에는 결코 失望이나 挫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希望 찬 勇氣와 슬기로 韓半島의 平和, 겨레의 繁榮 그리고 祖國統一을 위해 힘차게 邁進합니다.

1973年 6月 23日

大統領 朴正熙

朴大統領 南北相互不可侵協定提議

相互 武力侵略拋棄

相互 內政不干涉

休戰協定効力存続

朴正熙大統領은 1974年1月18日 서울에서 가진 年頭記者會見에서 北韓에 대해 南北韓이 相互不可侵協定을 체결할 것을 제의했다. 朴大統領은 이날 會見에서 統一을 指向하는 새로운 南北關係에 있어서 가장 緊要한 문제는 韓半島에 真正하고도 恆久的인 平和를 構築하는 것이라고 強調하고 統一에 이르기까지 過渡的 平和的 共存의 土台로서 南北韓이 相互不可侵協定을 締結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제의한다.

「내가 말하는 不可侵協定の 골자는 다음 세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南北이 서로 절대로 武力侵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滿天下에 약속하자는 것이다. 둘째로는 상호 內政干涉를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如何한 경우에도 現行 休戰協定은 그 効力を 存続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不可侵協定이 체결되고 만약 서로 성실히 遵守만 된다면 韓半島에서 戰爭은 예방되고 平和는 유지될 것이다. …… 이 協定을 맺어 놓고 앞으로 統一이 될때까지 平和共存을 해 나가면서 그동안에 서로 對話를 활발히 하고 交流와 協力を 해서 統一의 基盤을 하나 하나 다져 나가자…… 이것은 昨年 여름 우리 政府가 발표한 6.23 宣言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

朴大統領은 이날 會見에서 北韓이 말하는 소위 「平和協定」締結主張에 具體적으로 言及, 北韓의 同提議는 大韓民國에 대한 武力侵略企圖를 감춘 羊頭狂肉格의 偽裝平和提議라는 사실을 명백히 지적 痛駭했다.

朴大統領은 北韓이 이른바 「平和協定」주장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駐韓美軍의 撤収, 兵力의 감축, 軍裝備導入中止와 現存休戰協定体制의 白紙化이며 이것은 結局 大韓民國을 武装解除하여 그들이 有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武力南侵에 의한 赤化統一野慾을 達成하겠다는 黒心을 감춘 것이라고 啗破했다.

朴大統領은 北韓의 소위 「平和協定」이 「과연 真正으로 平和를

위한 것인가]고 反問하고 「北韓이 만약 眞正으로 平和를 원한다면 새삼스럽게 「平和協定」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現存 休戰協定만 遵守하면 될것」이라고 말했다. 朴大統領은 北韓이 過去 休戰協定の 여러 조항을 死文化시키면서 軍備를 增強해 왔고 심지어 19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聲明마저 지키지 않는 事例를 例擧하면서 過去の 事例로 보아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平和」라는 것을 「차기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때 시간을 얻기 위해, 또 相對方이 慢心하도록 하기 위해 내세우는」 상투적인 戰術用語라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國民的 警覺心을 환기시켰다.

朴大統領은 「平和는 무슨 協定이다. 條約이다 해서 종이 한장에 署名을 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문제는 平和를 지키겠다는 意志, 서로 戰爭을 양하겠다는 그런 意思가 명백히 있는냐의 与否에 달린것」이라고 闢破하고 「北韓이 지금이라도 休戰協定을 遵守하고 7.4 南北共同聲명의 精神을 誠實하게 이행하기만 하더라도 戰爭은 일어나지 않고 平和는 定着될것」이라고 強調했다.

朴大統領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渴望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統一이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統一이 이루어질 수 있는 時機과 与件이 成熟될때까지 平和的 共存을 해 나가면서 그동안에 南北이 활발하게 對話를 하면서 交流도 하고 協力도 해서 平和統一을 위한 基盤을 다져 나가야 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韓國, 平和統一 3大 基本原則 提示

1.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南北은 相互不可侵條約을 締結해야 한다.
2. 南北間에 相互 門戶를 開放하고 信賴를 恢復해야 한다. 이를 위해 南北對話를 誠實히 進行之시켜야 하며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바탕 위에서 公正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에 土着人口 比例에 의한 南北韓自由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을 이룩한다.

(다음은 1974年 8月 15日 서울市內 國立劇場에서 거행된 光復節 才 29周年慶祝式에서 있었던 朴正熙 大統領의 慶祝辭 全文이다.)

親愛하는 南北 同胞 여러분!

오늘 感激과 希望의 光復節 才 29周年을 맞이하여, 나는 먼저 南北의 5千萬 同胞 여러분과 더불어 뜻깊은 이 날을 眞心으로 慶祝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같이 慶祝하는 이 光復의 歷史 속에는 겨레의 잃었던 生命을 다시 찾은 民族解放의 歡喜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손으로 祖國再建의 새 設計圖를 實踐에 옮겨가야 할 希望과 意慾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光復에는 民族의 自我恢復과 現代國家의 創造라는 民族史土 커다란 새 紀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真正한 光復의 意義요, 價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가지 祖國의 平和統一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光復後 近 一代가 지나가려는 오늘에 이르러도 分斷의 悲劇과 緊張의 먹구름 속에서 아직도 光復의 참된 그 빛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단순한 儀式으로서가 아니라 解放의 기쁨을 統一의 기쁨으로 昇華시키려는 決意의 民族中興의 歷史를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盟誓의 祭典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同胞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지난날의 歷史를 回想해 볼때에 우리가 解放과 함께 統一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機會가 전혀 없었더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았읍니다.

1945年 12月에 萬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自主獨立을 熱望하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여 「모스크바」 3相會議의 信託統治案을 拳 族적으로 反對하였던들, 우리는 그때 이미 統一의 基盤을 構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건마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이 하루밤 사이에 態度를 豹變하여 反民族的인 信託統治案을 贊成 支持했기 때문에 不幸히도 이 땅에 는 民族分裂의 씨가 뿌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이어 1947年 11月 「유우엔」總회는 信託統治를 反對하는 우

리 民族의 意思를 尊重하여 「유우엔」監視下의 南北總選舉 實施를 建議하고 選舉의 監視任務를 맡을 臨時委員團까지 派遣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또다시 이를 拒否함으로써 總選舉에 의하여 統一政府를 樹立할 수 있었던 最初의 機會를 無慘히도 封鎖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우엔 韓國臨時委員團」의 入北을 拒否하는 한편, 北韓地域을 強壓적으로 支配하면서 所謂 人民軍을 創設하는데 狂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48年 5月에는 南韓에 대한 送電을 中斷했고, 같은해 6月에는 北에서 南으로 흐르는 禮成江의 물줄기를 끊어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國土와 民族을 兩斷하는 反民族的 蠻行을 서슴치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같은 情勢下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不得已 거래의 輿望에 따라 「유우엔」의 監視下에 總選舉를 實施하여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를 樹立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12月 「유우엔」은 우리 政府를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도 지나기 前에 그들은 惡辣하게도 当初에 企圖했던 바 그대로 韓半島를 赤化할 目的으로 奇襲적인 武力南侵을 敢行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50年 6.25 動亂입니다.

그들은 反民族的 蠻行으로 同族의 貴重한 人命犧牲은 莫大하였고, 全土는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武力侵略은 國際輿論의 糾彈을 받았고, 드디어 「유우엔」은 그들을 「侵略者」로 規定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反共救國의 一念으로 一致團結하여 共產侵略을 물리쳤고, 世界의 많은 自由愛護國家들은 우리의 이 鬪爭에 積極的인 協調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休戰成立後 1954年에 있었던 「제네바」政治會談에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우리가 提議한 民主的 節次에 의한 平和的 統一方案을 拒否함으로써 祖國統一의 機會를 또다시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赤化野慾을 버리지 않고 이른바 四大軍事路線을 強行하여 軍備를 계속 增強하는 한편, 우리에게 대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을 程度로 많은 武力挑發을 恣行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韓半島에는 緊張이 날로 激化되고 戰爭再發의 危險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緊張과 挑發의 樣相이 이 以上 더 激化된다면, 그것은 南北을 가릴 것없이 그야말로 우리 民族全體가 存亡의 危機에 直面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같은 危機 속에서도 이 땅에서 戰爭再發을 막고 緊張을 緩和하여 5千年 동안 連綿히 維持되어 온 우리의 民族史를 斷絶이 아니라 이를 더욱 빛나게 繼承 發展시켜야 할 嚴

肅한 각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使命을 遂行하는 첫 길에 南北間의 對話와 交流에 있다는 判斷下에 1970年 光復節에 北韓에 대해 武力赤化統一 路線을 拋棄하고 서로 發展과 繁榮을 위한 平和的 努力을 다하자고 促求하는 8.15 宣言을 發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에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였고, 또한 72년에는 온 겨레의 輿論을 받아들여 7.4 南北共同聲明을 發表하는데 主導的 役割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半世紀 동안 斷絶되었던 南北間에 비로소 對話의 門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南北對話의 過程에서 容易하고 實踐可能한 問題부터 解決하여 相互間에 信賴를 恢復하고 南北間에 가로놓인 障壁을 漸次的으로 除去해 나간다는 지극히 現實的인 立場에서 모든 誠意와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解放 直後부터 統一의 機會를 沮喪하기만 해온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도리어 우리의 國家安保를 危殆롭게 할 억지 主張만을 되풀이하면서 對話의 進展을 妨害하였으며 마침내는 南北對話를 膠着狀態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는 昨年 6月 23日 平和統一의 大前提인 恆久的인 平和를 이 땅에 定着시키고 平和統一의 實質的인 條件을 造成하기 위해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內外로 宣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꾸준한 平和努力에 대하여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오히려 南北對話를 갑자기 一方的으로 中斷시키고 우리에게 대한 더 무너없는 誹謗中傷을 더욱 露骨化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西海 五島水域과 休戰線 近隣에서 各種 軍事的 挑發行爲를 激化시켰습니다.

이러한 緊張高潮의 危機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南北間의 戰爭再發을 막기 위해 今年初에는 北韓側에 대하여 南北相互不可侵 協定の 締結을 提議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1945年 8月 15日 光復의 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民族의 切實한 念願이요, 至上命題인 平和統一을 이룩하기 위해 誠實하고도 一貫性있는 努力을 꾸준히 多角的으로 繼續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國家發展을 疾視하지 않을 수 없게 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우리의 不可侵協定 提議마저 外面하고, 最近에는 西海와 東海 公海上에서 우리 漁船을 擊沈·掌捕하고 警察警備艇을 擊沈하는 등 非人道的이고도 不法的인 蠻行을 계속 恣行해 오고 있는 事實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로는 平和統一과 民族의 團合을 云謂하고 있으나, 그 實에 있어서는 同族의 分裂과 武力南侵만을 劃策해 오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國民 여러분!

우리 大韓民國이 北韓의 執拗한 侵略的 挑發 속에서도 줄기찬 平和努力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國民이 總和團結하여 그

의 威脅에 屈하지 않고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세계에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程度로 国力의 高度成長을 持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國土의 모습과 國民의 마음은 새마을 운동으로 더욱 새롭고 希望차게 변모해 가고 있으며 輸出立國의 波瀾은 이제 五 大洋으로 힘차게 굽이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重化學工業建設의 우렁찬 발걸음은 躍進하는 大韓民國의 脈 搏이 되어 世界에 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油類波動과 資源難으로 惹起된 昨今の 世 界的 經濟不況에 슬기롭게 對處하면서 經濟成長에 계속 拍車를 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竣工과 더불어 開通을 자랑하게 된 서울 地下 鐵의 建設 등 大衆福祉生活의 基盤을 着實히 補充해 나가고 있음 니다.

이러한 우리의 国力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戰爭再發을 막고 平和 를 定着시키며 또한 그 바탕 위에서 平和統一의 實質的 基盤을 造成해 나가는 原動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同胞 여러분!

·歷史의 本質은 根本적으로 創造力이요 그 主体인 民族의 本質은 어디까지나 生命力 그것입니다.

·創造力에 의하여 歷史는 發展하고 生命力에 의하여 民族은 繼承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民族의 至上念願인 平和統一은 無窮한 創造力을 가진 民族史의 當然한 歸結로 이루어지고야 말것을 同胞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民族의 燦然한 中興과 繁榮도 無限한 生命력을 가진 우리 民族의 努力에 의하여 반드시 成就되고야 말것을 疑心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祖國統一은 반드시 平和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強調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誠實하게 追求해 온 平和統一의 基本原則을 明白히 闡明하고자 합니다.

平和統一을 위한 우리의 基本原則은,

첫째 :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南北은 相互不可侵 協定을 締結하여야 한다.

둘째 : 南北間에 相互 門戶를 開放하고 信賴를 恢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南北對話를 誠實히 進行시켜야 하며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 이 바탕 위에서 公正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에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 自由 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을 이룩한다.

나는 이와 같은 우리의 平和統一 基本原則이야말로 오늘의 國際環境 속에서 武力이 아닌 平和的인 方法으로 分斷된 祖國을 統一할 수 있는 가장 現實的인 면서도 實現性 있는 길이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平和를 定着시키고 그 平和의 바탕 위에서 統一을 이룩하려는 先平和 後統一의 政策基調를 지금까지 確固하게 維持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를 變함없이 一貫性 있게 계속 追求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北韓共產主義者들에게 한시 바빠 民族의 良心으로 되돌아와 7.4 南北共同聲明과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의 基本精神에 입각하여 祖國과 民族의 앞날을 위해 南北對話를 早速히 正常化하고 平和를 定着시키는데 誠實한 努力을 기울일 것을 強力히 促求하는 바입니다.

萬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우리의 6.23 平和統一外交政策과 不可侵 協定 締結提議를 끝내 拒否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외치는 統一이 平和統一이 아니라 武力統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滿天下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平和의 定着이 이룩되지 않는 곳에 平和統一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우리 友邦에 대해서도 對北韓關係에 있어서 衡平의 原則에 立脚하여 韓半島에서 勢力均衡이 破壞되지 않도록 格外히 留意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平和統一外交政策을 支持하고 韓半島와 東北 아시아의 平和에 寄與하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民族은 永遠한 것입니다.

이 永遠한 民族의 生命은 오직 國家를 통해서만 成長 發展하는
것입니다.

우리 겨레의 生命을 永遠토록 가꾸어 나갈 우리 大韓民國의 至上
目標은 다름아닌 祖國統一과 民族中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悠久한 民族史의 展開속에서 이 至上目標
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 다같이 民族中興의 理想主義者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民族中興의 理想主義者란 결코 幻想에 사로잡히
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現實을 直視하고 그 속에서 肯
定的 要素를 積極 開發하여 그것을 民族史 創造의 原動力으로 活
用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民族中興과 祖國統一의 基調가 오직 平和에 있으며
그 平和維持의 原動力은 다름아닌 国力이라는 것을 信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民族中興의 드높은 理想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黙黙히 땀흘려 国力培養을 極大化하는데 献身하는 사람이어야 합니
다.

이러한 意味에서 民族中興의 理想主義者란 다른 一方 着實한 現
實主義者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모두가 民族中興의 理想主義者인 同時에 또한

着實한 国力培養의 現實主義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해 두고
자 하는 바입니다.

政治人과 특히 우리 社會의 指導層은 分斷祖國의 冷酷한 現實을
直視하는 同時에 国力을 着實히 다져나가는 것이 곧 祖國統一과
民族中興을 成就하는 가장 가깝고도 빠른 正道임을 깨달아 一切의
浪費와 非能率的인 모든 것을 깨끗이 除去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모든 經濟人과 勤勞人들은 서로가 다 같이 經濟發展의 嚮導요
役軍이라는 使命感을 가지고 企業의 公益性 提高와 国力培養의 加
速化에 積極 獻身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知識人들은 主体的 民族史觀을 確立하여 보다 創造
的이고 協同的인 次元에서 國家發展에 寄與하고 國民精神의 醇化와
健實한 社會氣風의 振作에 先鋒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國民 모두가 다 같이 自己의 社會的 職分에서
維新課業遂行에 最善을 다할 때 우리의 理想, 民族中興은 틀림없이
歷史의 具體的 現實로 結實되고야 말 것입니다.

國民 여러분!

우리 모두 29年前 그 날의 그 感激과 그 情熱을 한결 같이
維新課業遂行에 總集結하여 民族의 偉大한 前進를 힘차게 계속해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解放의 기쁨이 統一의 기쁨으로 昇華되는 真正한 光復
祖國統一의 그 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합시다.

1974年 8月 15日

大統領 朴 正 熙

3. 통일관계 연대표

統一關係 重要事項 年代表

日 字	主要事項	內 容 概 要
1943.12.1	「카이로」宣言	美國, 英國, 中國은 다음과 같이 宣言; 「韓國國民의 奴隸狀態에 留意되고 獨立하게 될 것을 決意한다」
1944.7.26	「포츠담」宣言	「카이로」宣言의 諸條項 再確認
1945.12.27	「모스크바」協定	1. 韓國을 獨立國으로서 再建發展시키기 爲하여 全韓國臨時政府를 樹立한다. 2. 韓國臨時政府樹立을 돕기 爲하여 美·蘇兩軍司令部의 代表로서 共同委員會를 構成한다. 3. 共同委員會는 全韓國臨時政府의 樹立과 韓國의 完全樹立을 目的으로 한 美·蘇·英·中 4個國의 5個年을 期限으로 하는 信託統治 協定을 作成한다. 4. 南北韓에 緊急한 諸問題檢討를 爲하여 駐韓美·蘇兩軍司令部代表에 依한 會議을 2週日內에 召集한다. (1946. 1. 10以前에 召集)

日 字	主要事項	内 容 概 要
1947. 9. 17	「유엔」總회에 韓國問題提出	美國은 韓國의 獨立問題를 「유엔」總회에 提出
1947. 11. 14	「유엔」第 2 次總會 決議 (美·蘇·中·比 共同 提出)	<p>1. 「유엔」總회는 韓國國民의 時急하고 正當한 獨立要求를 認定하고 選舉의 公正을 監視하기 위하여 「유엔」臨時韓國委員會를 構成한다.</p> <p>2. 同委員會의 監視下에 秘密投票에 의하여 人口比例에 總選舉를 實施하여 政府를 樹立한다.</p> <p>3. 樹立된 政府는 同委員會와 協議하여 國防軍을 組織하고 이에 包含되지 아니한 모든 軍事的 或은 半軍事的 組織體를 解散하며 南北의 軍司令部 및 民間當國으로 부터 政府의 諸機能을 引受하고 可及的 速히 (可能하면) 90日 以內에 占領軍이 完全撤收토록 占領國家와 協議한다.</p> <p>註 ; 本決議案은 總會員國 57 個國中 可決 43, 否 0, 棄權 6, 欠席 8 로 可決</p>

日 字	主要事項	內 容 概 要
1948. 2. 26	「유엔」小總會 韓國內 接近可能 한 地域에서 總 選舉決議	贊成率 75% 1. 「유엔」韓國委員團과 協議할 수 있는 韓國民의 代表를 選 挙한다. 2. 「유엔」韓國委員團이 接近할 수 있는 韓國內 地域에서 總 選舉를 實施한다. 可 51, 否 2, 棄權 11 註; 이로써 1948. 5. 10. 南韓總選 舉가 實施됨.
1948. 4. 30	平壤서 開催된 南北諸政黨 社会 团体代表者 連席 會議의 共同聲明	1. 外國軍隊의 即刻的 同時撤收 2. 그 後 連席會議에 參加한 南 北諸政黨의 共同名義로 全朝鮮 政治會議을 召集하고 民主主義 臨時政府를 樹立한다. 3. 同政府는 一般的 直接的 平等 的 秘密投票에 의해서 統一的 朝鮮立法機關選舉를 實施한다. 4. 同立法機關은 朝鮮憲法을 制定 하고 統一的 民主政府를 樹立 한다.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48. 6. 12	制憲國會決議	5. 南朝鮮 单独選挙에 断然反對한 다. 1948. 5. 31 召集된 制憲國會는 北韓 의 人口數에 比例한 議席 約 3 分 之 1 을 空席으로 남겨두고 6. 12 決議로서 北韓의 國會議員을 選出하 여 合流하기를 呼訴
1948. 7. 5	平壤에서 開催된 第 2 次 南北連席會 議의 決定 (勞動黨 의 提議)	選挙의 實施에 基하여 朝鮮最高人民 會議을 創設하고 南北朝鮮人民代表者 에 의하여 朝鮮中央 政府를 樹立한 다.
1948. 7. 17	憲法 公布式에 즈 음하여 李承晩大統 領의 (國會議長) 의 紀念辭	北韓同胞에게 100 余席의 議席이 그 들의 代表를 爲해 空席으로 保留되 어 있음을 想起시키고 北韓도 「유 엔」決議에 順應하여 自由選挙를 實 施하고 選出된 代表를 國會에 보내 도록 要請.
1948. 9. 10	北傀金日成이 最高 人民會議에서 發表 한 政綱	1. 南北朝鮮人民의 意思에 따라 創 立된 中央政府는 全朝鮮人民을 政府의 周圍에 굳게 團結시켜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48.12.12	「유엔」第3次 總 會大韓民國이 合法 政府임을 宣言	<p>서 早速한 祖國의 統一을 위 한 鬪爭에 動員하고 國土完整 과 民族統一의 必須的 先行條 件이 되는 美·蘇兩國軍隊의 同時撤収에 관한 蘇聯의 提議 를 實現시키기 위하여 全力을 다한다.</p> <p>2. 外來侵略勢力으로부터 國土를 防衛하고 北朝鮮에서 이미 戰 敗한 民主改革成果를 防衛하기 위하여 共和國政府는 人民의 軍隊를 모든 方面에서 強化한 다.</p> <p>註 ; 이것은 北傀의 南嚮侵略에 의 한 武力的 共產統一에 대한 最初의 示唆임 .</p> <p>1. 「유엔」監視委員會이 監視와 協議를 할 수 있었던 地域에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었으며, 同政府가 韓國에서 唯一合法政 府임을 宣言</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49. 6.28	北傀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結成大會에서 採択된 方案	<p>2. 占領軍은 早速히 撤収하여야 하며 臨時委員團과 大体로 同一한 範圍의 恆久的인 「유엔」 韓國委員團을 設置할 것을 決議.</p> <p>註 ; 可 48 , 否 6 , 棄 1 , 欠席 3</p> <p>1. 統一事業은 朝鮮人民自身이 行한다.</p> <p>2. 美軍과 國聯朝鮮委員會는 即時 撤退한다.</p> <p>3. 立法機關의 選舉를 위하여 南北 朝鮮의 總選舉를 實施한다.</p> <p>4. 南北朝鮮의 政黨社會團體代表에 의한 選舉委員會를 構成한다.</p> <p>5. 總選舉의 自由를 保證하기 위한 諸對策을 實施한다.</p> <p>6. 選舉委員會는 南北의 現政府에 대하여 選舉의 準備 實施에 必要한 指示를 하고 또 外國軍隊 撤退 監視委員會를 構成하여 南北朝鮮의 警察을 直接管理한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概
1949.6.29.	美軍, 南韓으로부터 完全撤収	<p>7. 總選挙에 의하여 樹立되는 立法機關은 朝鮮共和國憲法를 採択하고 政府를 構成하고 新政府는 南北政黨으로 부터 政權을 引受한다.</p> <p>8. 南北朝鮮의 軍隊는 그 政府가 統合せ킨다.</p> <p>1. 1948. 5.10. 選挙直後 美國은 軍隊撤収計劃始作</p> <p>2. 1948.11.20. 進行中인 美軍撤収計劃에 비추어 韓國國會는 韓國이 自身の 防衛를 위한 軍備가 完了될 때까지 同撤収를 延期할 것을 要求하는 決議案通過</p> <p>3. 美軍의 撤収는 6.29로 完了되었으며, 이는 「유엔」 韓國委員國이 監視하였고 確認하였다.</p>
1949. 9.10	北傀 朴憲永(外相)이 「유엔」總會議長과 事務總長에게 보낸 抗議書에 表示된 統一方	<p>1. 朝鮮의 統一은 國聯의 어떠한 機構도 干涉해서는 안된다.</p> <p>2. 朝鮮統一은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統一方案을 實施함으로써만이 實現될 수 있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50. 6. 7	<p>案</p> <p>北塊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擴大中央委員會에서 採択한 平和統一呼訴文</p>	<p>3.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府는 朝鮮人民의 眞實 代表가 參加하지 않은데서 通過한 朝鮮問題에 관한 決定은 一切 無効임을 宣言한다.</p> <p>1950年 6月5日 祖國 統一民主主義戰線 擴大大會 中央委員會를 열고 6月7日 다음과 같이 提案를 決定 發表하였다.</p> <p>1. 統一的 最高立法機關을 設立하기 위하여 8月5일부터 8日사이에 總選舉를 實施할 것.</p> <p>2. 8.15 解放 第5週年 紀念日을 統一된 祖國에서 맞기 위하여 이 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最高立法機關의 會議를 8月15日에 서울서 召集할 것.</p> <p>3. 平和統一의 모든 必要한 條件과 手續을 討議決定하기 위하여 이 選舉에 의하여 南北朝鮮의 全政黨 社會團體代表者 協議會를 38度線의 沿線의 海州市 또는 開城市의</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1954. 6. 15</p> <p>北 京</p> <p>中 華 人 民 共 和 國</p> <p>政 府</p> <p>宣 佈</p> <p>對 南 韓 政 府</p> <p>之 協 議 對 象</p> <p>中 之 部 分 人 員</p> <p>將 予 除 去</p> <p>及 排 除</p> <p>其 關 係 人 員</p> <p>之 提 案</p>	<p>北 京 宣 佈 對 南 韓 政 府 之 協 議 對 象 中 之 部 分 人 員 將 予 除 去 及 排 除 其 關 係 人 員 之 提 案</p>	<p>어느 都市에서 6月15日부터 17日에 걸쳐 召集할 것.</p> <p>4. 李承晚 李範奭 金性洙 申性模 趙炳玉 蔡秉德 白性郁 尹致映 申興雨 等 民族反逆者는 協議의 対象에서 除去할 것. 또한 國 聯朝鮮委員會의 関与를 排除할 것. 韓國側의 政党 및 团体中 에서 尹致映 金性洙가 關係하고 있는 大韓國民黨 및 民主國民黨 의 두 政党은 協議의 対象에서 除外한다.</p> <p>註 ; 南北協議會의 協議對象에서 大 韓國民黨 民主國民黨의 當時韓 國에서의 与党勢力을 除去하고 李承晚博士 金性洙氏等 韓國政 府의 主要人物을 対象에서 排 除할 것이 特色인데 이로서 또한 現實性이 없는 提案이었 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50. 6. 19	北傀最高人民委員會가 韓國國會에 보낸 提案	統一을 實現시키기 위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最高人民會議와 韓國國會를 合하여 單一立法機關으로 聯合할 것. 註: 從來 연거피 主張해 온 總選舉案과는 달리 南北韓의 議會를 連合하자고 主張한 것이 特色으로 12日 前에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 發表한 呼訴文과 矛盾되는 點이 있다.
1950. 7. 7	駐韓「유엔」司令部 設置	「유엔」安全保障理事會는 韓國의 防衛作戰을 統一化하기 위하여 軍隊 其他 援助를 提供함은 國家들이 美國指揮下의 統合司令部에 集結할 것 을 要求하는 決議를 採択 이에따라 16個會員國이 軍隊를 統合司令部에 派遣함.
1950. 10. 7	「유엔」 才5次總 會의 統韓 및 「인 커크」 設置에 關한 決議	특히 韓國의 統一이 아직 達成되지 않았고 또한 北韓이 武力으로서 大韓民國政府를 倒壞시키기 위한 武力 攻擄을 企圖하고 있다는 事實에 留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意하고,</p> <p>1. 大韓民國政府가 韓國內의 唯一合法政府라는 才3次 總會의 宣言을 想起하며,</p> <p>ㄱ. 全韓國의 安全狀態를 確保하기 위한 모든 適切한 措置를 取할 것.</p> <p>ㄴ. 「유엔」主權 下의 選舉實施를 包含하여 主權國인 韓國內의 統一되고 獨立된 民主政府를 樹立하기 위하여 모든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p> <p>2. 亞州, 「칠리」,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泰國 및 「터키」로서 構成되며 「유엔」韓國統一復興委員會 「언커크」로 알리워질 委員會를 設置하여 現在의 韓國委員會가 지금까지 行使하여 오던 모든 機能을 担当케 하고 全韓國의 統一獨立된 民主政府를 樹立함에 있어서 「유엔」을 代表케 할 것.</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註；總會員國，60 個國中 可 47，否 5，棄權 7，欠席 1
1950.10.17	李承晩大統領의 政 府 見解 表明	收復될 北韓地에 대한 行政權을 大韓民國이 行使해야 한다.
1950.10.2	林炳稷外務長官의 「유엔」才 5次總會 에서의 言明	北韓에서의 「유엔」監視下의 自由 選舉를 歡迎하나 南韓에서의 새로 운 選舉는 反對한다.
1951.2.5	李承晩大統領의 言 明	38 線은 이미 없어졌다고 言明하고 北韓進軍을 主張.
1951.6.5	才 2代國會決議	侵略者 中共軍의 侵略行爲制止와 韓國全域으로 부더의 撤退로 大韓 民國主權下에 韓國의 完全自由統一 을 先決條件으로 하는 内外의 어 떠한 休戰에도 反對한다.
1953.7.27	休戰協定 才 4 條 雙方의 關係 政府 에 對한 動議」60 項	韓國問題의 解決을 爲하여 雙方의 軍司令官은 雙方의 關係各國政府에 對하여 休戰協定이 署名되고 發効 한 後 3 個月 以內에 各各 代表 를 派遣하여，高級 政治會議를 열 어 全 外國軍撤收問題와 韓國問題 의 平和的 解決等 問題에 關하여 協議토록 建議한다.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53. 11. 23	李承晚大統領의 聲 明(公報處發表)	<p>1. 北韓만의 单独選舉로 国会의 残余席을 채우는 것이 原則이다.</p> <p>2. 그러나 北韓住民이 希望한다면 全国總選舉를 받아들일 用意가 있다.</p> <p>註; 本聲明은 休戰 後 나온 韓國政 府의 最初의 統一方案이다.</p>
1954. 4. 27	北傀代表 南日의 「저네브」會談에서 의 韓國統一에 關 한 提案	<p>1.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와 大韓民國 政府는 朝鮮의 急速한 復興과 獨立 및 統一民主 國家를 創設할 目的으로 다음 事項을 促進한다.</p> <p>가. 全朝鮮住民의 自由로운 意思 表示基礎 위에서 朝鮮의 統一 政府를 形成할 国会議員 總選舉를 實施한다.</p> <p>나. 自由總選舉를 準備하고 南北 朝鮮의 經濟 및 文化的 接近 措置를 取하기 위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와 大韓民國國會에서 各各 選</p>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54. 4.27	英国代表의 「저네브」會談에서의 韓國	<p>出된 代表 및 南北朝鮮의 가장 큰 民主主義 社会團體의 代表에 依하여 全朝鮮委員會를 組織한다.</p> <p>다. 全朝鮮委員會는 選舉法 草案을 準備한다.</p> <p>라. 全朝鮮委員會는 南北朝鮮의 經濟, 文化 및 通行書信의 自由交流을 實施할 對策을 即時 講究한다. (1954 .5.22. 中國代表 周恩來에 依하여 追加提案 됨)</p> <p>2. 6 個月 以內에 一切의 外國軍隊를 撤収시킨다.</p> <p>3. 極東의 平和維持에 関心을 갖는 諸國家는 朝鮮統一의 急速한 解決에 必要한 條件을 마련해 줄 必要性을 認定할 것.</p> <p>註; 全朝鮮委員會를 組織할 것과 中共의 追加提案으로 中立國監視委員會를 組織하자는 點이 特色</p> <p>1. 統一韓國政府를 樹立하기 爲하여 選舉가 實施되어야 한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統一에 關한 提案	<p>2. 人民 意思를 바르게 反映하는 選舉는 南北韓의 人口比例를 考慮하여야 한다.</p> <p>3. 選舉는 普通秘密投票로 實施하여야 한다. 選舉는 完全한 自由空氣 속에서 可及的 빠른 時日內에 施行되지 않으면 안된다.</p> <p>4. 選舉는 國際的으로 監視되어야 하며 우리 見解로서는 이 監視는 「유엔」에 依하여 施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監視國家로서 選出된 國家는 반드시 韓國戰爭에 參加한 國家라야 할 必要는 없다.</p> <p>5. 韓國問題를 解決하는 모든 計劃은 各國 軍隊가 撤収하는 條件을 規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聯軍의 使命은 韓國의 平和와 安全保障을 確立하는데, 있으며, 이것이 達成되면 即時 撤収한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54. 5. 22	<p>朴承泰長官의 「저네브」會談에서의 韓國統一에 関한 提案</p>	<p>이것은 1950年 10月7日의 「유엔」總會決議에 明確히 陳述되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統一獨立民主韓國을 樹立할 目的 從前의 諸 UN決議에 依拠하여 「유엔」監視下에 自由選舉를 實施한다. 2. 現在까지 自由選舉가 不可能했던 北韓에서 그리고 南韓에서 大韓民國의 憲法上의 節次에 依拠하여 自由選舉를 實施한다. 3. 本提案을 採択 後 6個月 以內에 選舉를 實施한다. 4. 選舉의 前後 및 그 期間 中 選舉監視에 從事하는 「유엔」監視委員은 選舉實施의 全地域을 通하여 自由雰圍氣를 爭한 必要한 條件을 監視하며 造成하기 爲하여 行動 言論의 完全한 自由를 享有할 것. 現地 當局은 監視委員에 對하여 可能한 모든 便宜를 提供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한다.</p> <p>5. 選舉前後 期間中 立候補者 및 그의 選舉運動者와 家族은 行動言論 및 其他 民主諸國에서 認定되고 保障되어 있는 人權의 完全自由를 享有한다.</p> <p>6. 選舉는 秘密選舉 및 一般成人選舉權의 基礎에 立脚하여 實施한다.</p> <p>7. 全韓國議會의 議員數는 全韓國의 人口에 正比例할 것.</p> <p>8. 選舉地區의 人口에 正確히 比例되는 議員數를 割當하기 爲하여 「유엔」監視下에 人口調査를 實施한다.</p> <p>9. 全韓國議會는 選舉 直後 서울에서 開會한다.</p> <p>10. 下記問題는 全韓國議會가 開會後 制定되어야 한다.</p> <p>가. 統一韓國의 大統領을 새로히 選出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問題 나. 大韓民國의 現憲法의 修正與否</p>

日 字	重要事項	內 容 概 要
		<p>나. 軍隊의 解散에 關한 問題</p> <p>11. 大韓民國의 現憲法은 全韓國議會가 修正하지 않는 한 繼續有效한다.</p> <p>12. 中共軍은 選舉實施日보다, 一個月前에 韓國으로 부터 撤収를 完了한다.</p> <p>13. 韓國으로 부터 「유엔」軍의 漸進的 撤収는 選舉實施 前에 始作할 것이다.</p> <p>14. 統一獨立韓國의 權威와 獨立은 「유엔」이 保障하여야 한다.</p>
1954. 6. 5	<p>蘇聯代表 「모로토프」의 「저네브」會談에서의 韓國統一에 關한 提案</p>	<p>1. 韓國을 統一하고 独立的 民主主義 韓國政府를 樹立하기 爲하여 韓國全域에 自由選舉를 實施한다. 選舉는 本協商終結後 6個月 以內에 實施한다.</p> <p>또한 同選舉는 秘密投票 및 普通選舉에 따라 實施한다. 全韓國獨立立法부의 議員은 全韓國人口 比例에 依하여 選定한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2. 前韓國 自由選舉를 準備하고 實施하기 爲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및 大韓民國의 代表에 依하여 構成되는 機構을 樹立한다. 이 政府의 構成 및 任務는 지금부터 檢討해야 할 主題이다.</p> <p>3. 모든 外國軍隊는 協定될 期間 內에 朝鮮에서 撤収한다. 全韓 自由選舉에 앞서 北韓 및 南韓으로부터 모든 外國軍隊撤収에 對한 期間 및 그 段階는 지금부터 檢討되어야 할 主題이다.</p> <p>4. 全韓自由選舉實施를 管理하기 爲하여 適當한 國際委員會를 만든다. 그 構成은 지금부터 檢討해야 할 主題이다.</p> <p>5. 韓國의 平和에 對하여 如何한 侵襲이 있어도 이것을 沮止할 必要性을 認識함으로써 極東의 平和維持에 가장 直接的인 關係가</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있는 모든 國家가 韓國統一 問題 解決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韓國의 平和的 解決을 保證할 責任을 眞이緊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如何한 國家가 韓國의 平和的 解決에 對한 責任을 지며, 이와 같은 責任의 性格이 무엇이나 하는 問題는 지금부터 檢討해야 할 主題이다.</p> <p>1954. 6.15 北傀, 南日의 「제네브」會談에서의 修正案</p> <p>「제네브」會談參加國은 統一獨立, 民主朝鮮의 創設을 正確로 하는 朝鮮 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爲한 合意를 追求하는 見地에서 努力을 繼續한다는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p> <p>朝鮮에 있어서의 平和的인 條件을 保障하기 爲하여</p> <p>1. 關係各國政府는 可能한 限 빨리 比例原則에 立脚한 監視下에 朝鮮에서 全外國軍隊를 撤收시키기 爲한 方法을 講究토록 該當國家에 勸告한다. 撤退 時期는 「제네브」</p>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會議參加國의 合意에 依한다.</p> <p>2. 北朝鮮과 南朝鮮은, 1年 以內에 各各兵力을 10萬以下로 減軍한다.</p> <p>3. 戰爭狀態의 漸次的 解消와 雙方 協力的 平和的 態勢에의 轉換問題를 論議하고, 또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과 大韓民國政權에 適合한 協定을 締結토록 提議하기 爲한 南北朝鮮代表委員團을 構成할 것.</p> <p>4.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과, 他國家 間에 締結된 條約은 軍事的 義務가 包含되어 있는 限, 그것은 朝鮮의 平和的 統一과 兩立되지 않음을 認定할 것.</p> <p>5. 南北朝鮮의 交流回復條件을 만들 기 爲하여 經濟 및 文化的 關係 (交易, 清算去來, 運輸, 境界線關係, 住民活動의 自由, 郵便物交換)의 自由文化 및 科學的 關係의 確立에 合理的 方法을 講究하고 履行하기 爲한 全朝鮮委員會를 構成</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54. 6.15	韓國戰參戰 16個國 共同宣言	<p>할 것.</p> <p>6. 「제네브」會議參加國은 朝鮮의 平和的 發展을 保障하고 또한 統一獨立, 民主國家로서의 朝鮮의 平和的 統一課業을 促進시키는 條件을 創造하는 必要性을 認定할 것</p> <p>韓國統一과 獨立 및 自由를 爲하여 우리들이 基本的으로 생각하는 두 原則을 要約하면</p> <p>1. 「유엔」은 그 憲章에 따라 侵略을 擊退하고, 平和와 完全을 恢復하기 爲하여 集團行動을 取하며 韓國에 있어서 平和的 解決을 摸索하도록 周旋할 수 있는 充分하고 正當한 權限이 賦與되어 있다.</p> <p>2. 統一 獨立된 民主韓國을 樹立하기 爲하여 「유엔」監視 下의 土着人口 比例에 따라 代表者가 選出되는 國會議員의 真正한 自由選挙가 韓國에서 實施되어야 한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이 두 原則(基本的)을 共產側 이 拒否하는 限 이 會議에서의 以上の 論議는 無益하다고 結論 지는 수 밖에 없으며 韓國에 있 어선 「유엔」의 目的을 爲하여 繼續支持할 것을 再確認한다.
1954. 6. 22	北傀 祖國戰線中 央委員 第 34 次 會議에서 採択된 呼訴文에 나타난 統一方案	上記 南日 提案과 同一
1954. 7. 30	李承晚大統領 訪 美時 「아이젠하워」 美大統領과의 共同 同聲明에 나타난 統一方案	우리는 「유엔」憲章 및 韓國問題 에 관한 「유엔」總회의 決議에 따라 統一民主獨立韓國을 達成하기 위하여 繼續해서 行動하려는 우리 의 意圖를 再確認한다.
1954. 10. 2	第 3 代 國會의 統 一案에 대한 決議	「유엔」監視 下에 北韓全域에서 全共產軍이 撤退한 後 選舉를 實 施하여 大韓民國 主權을 扩充하는 것이 國是이다.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54.10.30	北傀最高人民會議 第1期 第18次會 議에서 採択된 呼訴文	<p>1. 平和的 統一問題를 討議하기 위 하여 南北朝鮮의 各 政党社会团体 및 各界各層의 代表者 連席會議 또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最高 人民會議와 大韓民國 國회의 共同 會議을 平壤 또는 서울에서 1955 年 內에 召集할 것.</p> <p>2. 前記會議 召集에 관한 問題와 南北朝鮮間의 經濟 및 文化交流, 通商, 通行, 書信往來의 開始에 관 한 問題를 討議하기 위하여 南北 朝鮮代表者 會議을 1955年 2月 에 板門店 또는 開城市에서 召集 할 것.</p> <p>3. 南北朝鮮各政党团体 및 各界各層 의 愛國的인 人士는, 祖國의 平和 的 統一의 對策을 講究하기 위하 여 相互連絡往來하고 相互接觸하지 않으면 안된다. 南北朝鮮의 主權 當局은 全朝鮮地域에 있어서, 이들 사람들이 自由로운 活動이 되도록</p>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54. 12. 11	「유엔」第9次 總會決議	<p>保障할 것.</p> <p>1. 「저네브」에서 開催된 韓國政治會談에 관한 報告書를 承認하고</p> <p>2. 「유엔」의 目的이 代議政治下에 平和的 方法에 의하여 統一, 獨立, 民主韓國을 樹立하고 同地域에 있어서의 國際平和와 完全을 回復하는 것 임을 再確認하며</p> <p>3. 이러한 目的에 대한 進展이 尠지않아 可能하게 되리라는 希望을 表明하며</p> <p>4. 이 問題를 第10次 總會의 臨時, 議題에 包含시킬 것을 要請註; 總會員國數 60 個國中 可 50, 否 5, 棄權 4, 欠席 1</p>
1955. 1. 30	在日僑胞團體인 <u>祖國平和統一促進全國協議會</u> 가 發	<p>1. 祖國의 統一獨立을 實現하기 爲하여 民族的 大局에 서서 大同 團結한다.</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55. 3. 7	表한 宣言文 北愧 祖國統一民 主主義戰線 第18 次會議聲明	2. 統一政府는 南北을 通한 自由選 挙에 의하여 樹立한다. 3. 自由 總選舉와 祖國統一, 獨立은 國際的으로 保障한다. 1. 南北協商會議가 成立되지 못하고 統一이 遲延된 모든 責任은 美帝 國主義와 李承晚徒黨이 지지 않으 면 안된다. 2. 美帝國主義와 南朝鮮主權當局이 最高人民會議의 呼訴를 拒否한다고 해서 南北協商의 길이 永遠히 단 히는 것은 아니다.
1955. 11. 29	「유엔」第10次 總會決議	1. 「유엔」의 目的과 符合되는 方 向에서 韓國問題의 早速한 解決을 繼續 追求할 意思를 再確認하고 2.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繼續 的인 努力이 傾注될 것을 促求하 며 3. 韓國問題를 第11次 總會의 臨 時議題로 上程할 것을 要請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56. 4.28	北傀朝鮮勞動黨第3次 党大会에서 採択된 平和統一을 위한 宣言	<p>註 ; 總會員國數 60 個國中 可 44 , 否 0 , 棄權 11 , 欠席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朝鮮의 統一政府는 全体朝鮮人民의 總選舉에 의하여 樹立되어야 한다. 2. 平和的 統一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停戰의 成果를 鞏固한 平和에로 轉換시켜야 한다. 3.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愛國的 熱誠과 積極性이 遺憾없이 發揮하기 위하여서는 南朝鮮의 全般的 社会, 政治生活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原則이 實現되고 人民大衆의 生活이 安定改善되어야 한다. 4. 平和的 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現存하는 南北朝鮮間의 不自然한 障壁이 除去되어야 하며 南北人民間의 相互接觸과 協商이 이루어져야 한다. 5. 美帝를 反對하고 平和統一의 敵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56. 6. 2	北 韓 外 相 南 日 의 聲 明	<p>을 反 對 하 는 共 同 鬪 爭 을 強 化 하 여 야 韓 だ .</p> <p>6. 朝 鮮 에 서 의 平 和 維 持 와 朝 鮮 問 題 의 平 和 的 解 決 을 위 한 國 際 的 協 定 이 締 結 되 어 야 韓 だ .</p> <p>1. 朝 鮮 全 土 로 부 터 모 든 外 國 軍 隊 를 撤 去 할 것 .</p> <p>2. 朝 鮮 의 平 和 的 統 一 問 題 를 審 議 하 기 위 하 여 關 係 國 家 會 議 를 召 集 할 것 을 要 求 韓 だ .</p>
1956. 7. 3	在 北 平 和 統 一 促 進 協 議 會 結 成 大 會 의 宣 言 文	<p>1. 朝 鮮 人 民 의 一 切 의 隸 屬 과 干 涉 을 물 리 치 고 自 由 獨 立 精 神 을 굳 게 가 질 것 .</p> <p>2. 平 和 的 統 一 을 達 成 할 것 .</p> <p>3. 南 北 間 에 相 互 接 觸 과 理 解 를 造 成 하 며 書 信 과 住 民 의 來 往 , 經 濟 , 文 化 , 芸 術 , 科 學 의 交 流 를 促 進 할 것 .</p> <p>4. 南 北 政 權 當 局 , 國 會 或 은 政 黨 , 團 體 代 表 및 愛 國 的 人 士 들 로 서</p>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56.11.7	北傀最高人民會議 第12次會議에서 採択한 大韓民國 民議員과 全体韓 國社会人士에 보 내는 書翰에 나 타난 統一方案	<p>統一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常設機 関을 設置할 것.</p> <p>5. 南北總選舉에 의하여 統一民主聯 合政府를 樹立할 것.</p> <p>6. 朝鮮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하 여 關係國家의 協調를 求할 것.</p> <p>1. 平和統一을 위하여 一切의 外國 軍隊를 撤收할 것.</p> <p>2. 南北朝鮮의 軍備縮少會議의 開催 를 支持할 것.</p> <p>3. 休戰狀態의 平和狀態로의 轉換을 위하여 鬪爭할 것.</p> <p>4. 이와같은 提案의 實現을 위하여 大韓民國 民議院代表 또는 個別人 士들과 任意의 場所에서 面談하고 提案</p>
1956.11.10	進歩黨의 統一方 案	<p>1. 統一, 獨立된 民主的 韓國의 國 會를 形成하기 위하여 自由選舉를 施行한다.</p> <p>2. 이 選舉의 準備와 實施를 監督 하고 監視하기 위하여 國際監視委</p>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員회를 設置한다. 이 委員會는 印度, 端西, 「체코슬라바키아」代表로 構成되고 印度代表가 議長이 되어야 한다.</p> <p>3. 選舉를 準備하고 實施하기 위하여 大韓民國과 北朝鮮當局에서 各各 選出한 代表로 稱成되는 全韓國委員會를 設置한다.</p> <p>4. 全韓國委員會는 南北双方의 合意制原則에 따라 運營되며, 그의 當面의 最大課業은 選舉法의 作성과 自由로운 雰圍氣를 造成하는 것이다.</p> <p>5. 選舉는 合意成立 後 6個月 以內에 施行한다.</p> <p>6. 國際監視委員은 行動・言論의 自由를 가지며 可能한 모든 便宜가 提供된다.</p> <p>7. 選舉 前後를 通하여 立候補者 選舉運動員 및 그 家族은 言論 行動 그밖에 民主國家에서 認定</p>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되어 있는 人權을 享有한다.</p> <p>8. 選舉는 比例制原則과 秘密投票 및 成人의 普通選舉에 基하여 施行된다.</p> <p>9. 全韓國議會는 選舉 直後 서울에서 召集한다.</p> <p>10. 全韓國委員會는 統一韓國의 憲法作成, 軍隊의 解散等에 관한 問題를 決定한다.</p> <p>11. 다음 諸問題는 特히 全韓國委員會가 決定할 議題로 한다.</p> <p>ㄱ. 統一韓國의 憲法作成에 관한 問題</p> <p>ㄴ. 軍隊의 解散에 關聯된 問題</p> <p>12. 諸外國軍의 撤收는 統一選舉合意後, 選舉實施 前부터 始作하여 統一政府가 治安責任을 担当한 後 完全히 撤收한다.</p> <p>13. 統一, 獨立된 民主韓國의 平和와 再建勛力を 強大國을 包含한 諸國家가 責任을 진다.</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57. 1.11	「유엔」第11次 總會決議	<p>1. 1954.12.11 및 1955.11.29의 總會決議案으로 再確認된 韓國統一原則을 促進하고</p> <p>2. 「언커브」의 任務繼續과 活動 促進</p> <p>3. 韓國問題를 第12次 總회의 臨時議題로서 上程할 것을 要請</p> <p>註; 會員國 80 個國中 可 57, 否 8, 棄權 6, 欠席 6</p>
1957. 9.20	北傀 最高人民會議 第2期 第1次會 議에서 行한 金 日成의 演說	<p>1. 朝鮮에서 모든 外國軍隊는 撤去하여야 하며 南北朝鮮의 兵力을 各各 10萬으로 縮少할 것을 南朝鮮當局에 提議한다.</p> <p>2. 南北間의 通行과 人民들의 自由로운 來往通信 및 文化交流를 위한 具體的인 措置를 遲延 없이 取할 것을 다시 한번 提議한다.</p> <p>3. 朝鮮問題의 平和的 調整을 위하여 南北朝鮮의 代表를 參加시키는 有關國家들의 國際會議을 召集할 것.</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57. 11. 29	「유엔」第12次 總會에서의 決議	<p>4. 一般的, 平等的, 秘密投票의 方法으로 全國的인 選舉를 實施함으로써 南北을 統一할 것.</p> <p>1. 1954年 「저네브」韓國政治會議에서의 15個國 宣言과 總會에서 再確認된 統一原則에 근거한 韓國問題解決案에 到達하기 위한 「유엔」의 目的을 受諾하도록 共產當局에 要求하는 決議案 採択.</p> <p>註; 會員國 82 個國中 可 54, 否 9, 棄權 16, 欠席 3.</p>
1958. 2. 5	北緯의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提案」	<p>1. 朝鮮에서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朝鮮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南北朝鮮의 一切 外國軍隊를 撤去시킬 것.</p> <p>2. 一切의 外國軍隊가 撤去한 後 一定한 期間 內에 中立國 監視下에 全 朝鮮 自由選舉가 實施되어야 한다.</p> <p>3. 南北間의 經濟 및 文化交流와 全 朝鮮選舉에 관한 問題等を 討</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議하기 위하여 同等한 基礎 위 에서 南北代表會議을 開催할 것. 4.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이 미 8 萬名의 武力을 縮少한 바 있거니와 今後 早速한 期間 内 에 南北朝鮮의 軍隊는 各各 最 少限度로 縮少되어야 한다.</p>
1958. 2. 19	北傀와 中共의 共 同聲明	北韓에서 中共軍이 1958 年 内에 撤収할 것을 聲明
1958. 5. 30	英國「이코노미스 트」誌가 論及한 韓國統一案	統一된 韓國은 「핀란드」가 그러하 듯이 언제나 中國의 善意下에서만 存続하게 될 것이다. 共產블력과 特別한 交易關係를 맺어야 할 것이 며, 또한 國聯에 있어서 投票할 때 도 「핀란드」와 같이 慎重하게 될 것이다... 韓國에서 「핀란드」와 같 은 存立樣式을 追求함은 有益한 일 이다.
1958. 11. 14	「유엔」第13次 總會에서의 決議	1. 平和的 手段에 의하여 代議政体 下의 統一獨立 民主韓國의 樹立과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該地域에서 國際平和와 安全保障의 回復을 成就하겠다는 「유엔」의 繼統的 決議에 대하여 關係 共産当局의 注意를 喚起한다.</p> <p>2. 1954年 「제네브」에서 開催된 韓國政治會談에서 「유엔」을 代表하여 參加한 諸國이 規定하고, 總會가 確認한 統一基本原則에 依拠한 韓國問題解決을 위하여, 確立된 「유엔」의 諸目標을 이들 共産当局이 受諾할 것을 要求한다.</p> <p>3. 總會가 養成한 諸原則에 依拠한 眞正으로 自由스러운 選挙의 實施에 대하여 早速한 時日內에 合意할 것을 이들 共産國家에게 促求한다.</p> <p>4. 「언카크」에 대하여, 總會의 事事을 繼續할 것을 要請한다.</p> <p>5. 事務總長에 대하여 韓國問題를</p>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總會 第14次 會議의 臨時議題中 에 包含시킬 것을 要請한다.</p> <p>註; 會員國 81 個國中 可 54, 否 9, 棄權 17, 欠席 1로 可決.</p>
1958.12.25	<p>韓國 「협프리」 上院議員이 言及 한 韓國統一案</p>	<p>韓國의 統一은 「유엔」監視 下에서 自由로운 選舉에 의하여 行해지지 않으면 안된다.</p>
1959.10.26	<p>北塊最高人民會議 第2期 第6次會 議에서의 南日 (副首相)의 演 說</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一切의 外國軍隊는 撤去할 것. 2. 最短期間 內에 南北朝鮮軍隊를 各各 10 萬以下로 縮少할 것. 3. 南北朝鮮當局은 相對方에 反對하 여 武力을 使用치 않을 것을 相 互宣言할 것. 4. 一切의 外國軍隊가 撤去한 後 全朝鮮의 自由選舉를 實施할 것. 5. 全朝鮮 實施問題를 包含한 平和 統一에 관한 諸問題를 討議하기 위하여 南北朝鮮의 國會, 政府 또 는 政黨社會團體代表로 構成되는 常設委員會를 組織할 것. 6. 南北朝鮮人民間의 相互往來와 書信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往來의 自由, 經濟, 文化, 科學, 藝術, 體育 및 其他 部門의 相互 交流를 實施할 것.</p> <p>7. 于先 南北間의 經濟代表로 構成되는 南北朝鮮의 經濟發展 및 交流常設委員會를 組織할 것.</p>
1959.	民主黨의 主張	<p>大韓民國 政府代表가 「저네브」會談時 提示한 統一方案은 卽 民主黨의 統一方案이다.</p>
1959.	自由黨의 主張	<p>1. 北進統一을 主張 그 方法으로</p> <p>1) 「유엔」軍과의 北進</p> <p>2) 美國의 協力を 얻어 北進</p> <p>3) 單獨北進</p> <p>2. 大韓民國 主權下의 大韓民國 憲法秩序 下의 南北統一이어야 한다</p>
1959.	統一黨의 主張	<p>平和時와 戰時을 通하여 友邦과 提携하여 人類 自由를 永遠히 保障할 수 있는 原則 下에 統一을 推進한다.</p>
1959.	在日橋胞 金三奎	<p>1. 民主, 民族自決, 國際平和의 原則</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59.	의 統一方案	<p>1. 立脚하여 世界各國의 協力으로 韓國을 中立化하고 美·蘇에 軍事基地를 反對한다.</p> <p>2. 統一韓國의 政權은 現存하는 南北兩政權의 野合이 아니라 兩政權을 完全히 解体하여 새로이 組織하는 것이라야 한다.</p> <p>3. 選舉管理는 第3者도 自他가 共認하는 中立國을 「유엔」이 任命하는 境遇를 予想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p>
1959.10.31	蘇聯最高會議 聯邦民族兩院合同會議에서의 「호루스 초프」蘇聯首相이 行한 「國際情勢와 蘇聯外交 政策」의 演說	<p>지금이야말로 韓國問題의 最終的 解決을 進行시킬 條件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外國軍隊의 南韓으로부터의 撤退에서 始作해야 한 것이다. 韓國에 外國軍隊가 없게 되고 外部로부터의 干涉이 없어진다면 韓國人民은 自己들이 南北의 接近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平和로운 民主的 土合위에 民族의 統一이 達成되는 前提가</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59.12.9	「유엔」 第14次 總會決議	<p>생긴다.</p> <p>1. 韓國에 있어서의 「유엔」의 目的은 平和的인 方法으로 代議 政体下の 統一, 獨立, 民主韓國을 樹立할 것과 同地域에 있어서의 國際的인 平和와 安全의 完全回 復을 達成하는데 있음을 再確認 하고</p> <p>2. 關係 共産当局에 대하여 1954 年 「저네브」韓國政治會議에서 「유엔」을 代表하여 參加한 國 家들에 의하여 提議되었고 總會 에서 再確認된 統一에 관한 基 本原則에 立脚한 韓國問題의 解 決을 達成하기 위하여 위와 같 은 「유엔」의 既定目的을 受諾 할 것과 總會에서 通過된 原則 에 따라 純粹한 自由選舉의 施 行에 早速히 同意할 것을 要求 하며.</p> <p>3. 「언커크」에 대하여 總회의</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關係決議에 따라 그의 任務를 繼續할 것을 要請하며</p> <p>4. 學務總長에 대하여 韓國問題를 第15次 總회의 臨時議提로 上程할 것을 要請한다.</p> <p>註; 會員國 82 個國中 可 54, 否 9, 棄權 18, 欠席 1로 可決</p>
1960.4.21	<p>北傀의 政黨社會 團體 代表者 連席 會議의 4.19 義 舉와 關聯한 共 同聲明</p>	<p>1. 南朝鮮에서의 美軍 即時撤退</p> <p>2. 統一問題를 討議하기 위하여 南 北朝鮮諸政黨 社會團體, 連席會議를 開催할 것.</p> <p>3. 南北朝鮮 經濟代表로서 南北聯合 經濟委員會를 構成할 것.</p> <p>4. 南北의 自由로운 往來와 書信往 來를 早速히 實施할 것.</p> <p>5. 어떠한 外國의 干涉없이 全體朝 鮮人民의 自由로운 意思에 의하여 南北朝鮮選舉를 實施할 것.</p>
1960.5.15	<p>北傀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의 8.15 呼訴文에 나타난</p>	<p>上記 方案과 同一</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0.6.17.	統一方案 社会大衆党 (假称) 發起 旨文에 나 타난 統一方案	1. 「유엔」과 提携하고 民主主義 의 勝利를 確保할 수 있는 条件 下에 國土의 平和的 統一을 期한다. 2. 統一計劃에 있어서는 金日成 一黨의 退陣이 當然히 前提되어 야 한다. 3. 共產主義者들의 欺瞞的 統一方 案과는 決코 妥協하지 않을 것 이다. 4. 國土統一問題에 있어서는 全人 民的인 超黨外交가 遂行될 것을 希望한다.
1960. 6	社会党的 選舉公 約中에 나타난 統一方案	「유엔」監視下의 總選舉
1960. 6	革新同志總聯盟의 選舉公約中에 나 타난 統一方案	民主的 諸政黨 및 社會團體가 統 一委員會를 構成하여 「유엔」의 協助下에 民主主義 勝利에 의한 政治的 南北統一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0. 6	社会革新党的 選挙公約 中에 나타난 統一方案	金日成體魄가 打倒되고 自由化 될 政權으로 代置되면 .南北交流를 許容 하며 그後 「유엔」監視下에 南北總 選挙의 實施로 平和的인 統一을 期 한다.
1960. 6	独立党的 選挙公約中에 나타난 統一方案	「유엔」精神 및 政策에 立脚한 自主的 民主統一
1960. 7.26	民主党的 7.29 選挙時 「國防, 外交政策의 刷新」 에 나타난 統一 方案	「유엔」監視 下의 南北自由選挙統一 을 主張한다. 國土統一의 方法과 時期에 關하여서는 여러점의 作戰計劃이 必要한 것이어니와 当面한 國際的 冷戰期에 있어서 우리는 強力한 外交攻勢, 政治攻勢, 宣傳攻勢를 取하여 統一外交의 主導權을 掌握해야 한다. 그 原則에서 우리는 1. 國際外交에 있어서는 「유엔」監視 下에 南北을 通한 自由選挙로 서 平和統一을 圖謀할 것을 原則으로 한다.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2. 選舉監視團의 構成員은 「유엔」 決議로서 選任하되 各目 真正한 自由選舉를 實施하는 會員國家로 할 것이다.</p> <p>3. 選舉 以前에 南北聯合委員會 等을 構成하는 案은 大韓民國이 韓國版圖內의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유엔」決議와 背馳되므로 이를 反對한다.</p> <p>4. 統一前 南北交流問題는 共產破壞 工作이 真正하게 停止되리라는 保障이 없으므로 이를 拒否한다.</p> <p>5. 統一될 韓國은 民主主義와 民權 自由를 保有하는 國家가 되어야 하며 赤色獨裁나 白色獨裁國家가 되어서는 안된다.</p>
1960. 8.14	北傀 金日成의 8.15 慶祝大會에 서의 演說에 言及된 統一方案	<p>1. 어떠한 外國의 干涉도 없는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 總選舉를 實施할 것.</p> <p>2. 아직 南朝鮮當局이 自由로운 南</p>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北 總選舉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면 過度的 措置로서 南北朝鮮의 「聯邦制」를 提議한다 (南北朝鮮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獨目的인 活動을 保障하 는 同時에 兩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組織하여 主로 南北間의 經濟文化發展을 統一的으 로 調劑한다)</p> <p>3. 萬一 上記提案等을 兩朝鮮政府當 局이 同意치 않는다면 南北朝鮮美 業界代表로 構成되는 純全한 經濟 委員會라도 組織하자.</p> <p>4. 南北朝鮮 文化使節 來往과 科 學文化, 藝術, 體育 等 모든 分野 에서의 交流를 다시 한번 提議한다</p> <p>5. 南朝鮮에서의 美軍의 即時撤退 를 要求하며, 南北朝鮮軍隊를 各各 10萬 또는 그 以下로 縮少할 것을 提議한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6. 以上の 諸問題를 協議하기 위하 여 南北朝鮮代表들이 平壤이나 서 울 또는 板門店에서 合議할 것을 南朝鮮当局과 政黨社会团体 및 個 人人士에게 提議한다.</p> <p>註; 過渡的措置로 南北韓의 「聯邦 制」組織과 南北朝鮮政府代表로 最高 民族委員會를 構成하자는 것이 特色</p>
1960. 8.24.	鄭一亨 外務部長 官의 7個外交政 策聲明 中の 統 一方案	<p>7個項中 第1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p> <p>「政府는 유엔 決議를 尊重하여 韓 國全域에서 유엔監視 下의 자유선거 를 實施함으로써 韓國의 統一을 이 룩하는 原則을 固守한다. 過去 自 由黨이 主張한 武力에 의한 韓國統 一을 하려는 無謀한 政策은 이제 廢棄되어야 한다. 」</p>
1960. 8.27	張勉 國務總理의 國會에서의 施政	<p>「유엔」의 路線에 의한 民主的 平 和統一을 實現한다. 그 方案으로</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0.9.10	演說 鄭一亨外務部長官 의 言明	「유엔」의 決議를 尊重하고, 「유엔」監視 下의 南北韓을 통한 總選舉를 實施할 것. 1. 平和的 統一을 實現한다. 2. 「유엔」監視 下에 大韓民國의 憲法節次에 따른 南北韓을 통한 總選舉를 實施한다.
1960. 9. 23	蘇聯首相「호루시 초프」의 「유엔」 第次總會에서의 發言	朝鮮問題를 武力으로 解決하려 드는 것은 무친 것이다. 朝鮮의 平和的 統一을 어떠한 外部의 干渉도 없이 朝鮮人民自身에게 맡기고자 하는 提案의 正當性은 層層 더 強하게 認定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必要條件은 美軍이 南朝鮮으로 부터 即時 撤退하는 事이다. 美軍의 南朝鮮駐屯은 朝鮮뿐 아니라, 全極東의 雰圍氣를 해치고 있고 南朝鮮에 있어서 不正選舉와 같은 부끄러운 事實을 可能케 하고 있다. 南北朝鮮의 聯合에 관한 北朝鮮의 提案은 東西獨逸 聯合에 관한,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0.10.3	在美 韓國問題研究 所長 金龍中의 韓 國中立化	<p>獨逸政府의 提案과 같이 合理的이며 平和統一의 좋은 出發이 되는 唯一 한 方法이다.</p> <p>1. 南北韓의 代表를 「유엔」總會에 招待한다.</p> <p>2. 軍事停戰委員會를 印度·버마·실 론·서전·서서와 같은 어느 勢力 國에도 屬하지 않는 中立國 委員 會와 代替시킨다.</p> <p>3. 南北間의 非武装地帶을 兩分 各 20 「마일」씩 擴大한다.</p> <p>3. 中立國 監視團의 監視 밑에 南 北韓의 軍隊를 漸次解散 시킨다.</p> <p>5. 非同盟 諸國으로 構成하는 中立 國委員會 監視下에 人口比例 代表 制에 의한 全國的 自由選舉를 實 施하여 單一政府下에 統一을 達成 한다.</p> <p>6. 統一된 韓國을 中立化 한다.</p>
1960.10.15	美國, 「윌리엄·홀 브라이트」上院外	<p>1. 韓國은 外國의 影響을 받지 않고 韓國民들이 自發的인 行動에 의하</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0.10.22	委員長의 言明 美國, 「멘스필드」 上院議員의 提案	여 統一되어야 한다. 2. 그것은 「유엔」의 援助下에 自由選舉로서 成就할 수 있다. 1955年 媾地利를 中立化하였던 바와 같은 土合위에서 韓國統一問題를 解決할 可能性을 가장 慎重히 檢討해야 한다. 註; 媾地利는 1955年 5年15日에 調印된 「媾地利國家條約」에 의하여, 媾地利는 原子武器 및 大量破壞武器를 所有, 製造實驗하지 않는다는 등의 條件으로 水世中立을 宣言하고 4大國(美, 英, 仏, 蘇) 占領軍이 撤退하여 獨立되었다.
1960.11.1	서울大學校民族統一 聯盟發起大會(正式 結成은 18日)에 서 採択된 對政府 및 社會建議文	1. 既成世代는 南北分斷의 悲劇을 가져온 道義的 責任을 病感하여 民族統一에 대한 새로운 世代의 正當한 發言을 黙殺내지 抑壓할 資格이 없음을 是認한다.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2. 韓國의 모든 政黨 및 社會團體는 敗北意識을 徹低히 払拭하고 南北總選舉에 對備하여 聯合하는 機構을 만들 것.</p> <p>3. 政府는 祖國統一問題에 對하여 現狀에 立脚한 積極外交로 轉換하라. 張 勉 國務總理는 이와 같은 外交의 一環으로서 祖國統一問題만 을 協議하기 爲하여 美國과 蘇聯을 特別訪問하여 美·蘇指導者와 直接 會談하라.</p> <p>4. 世界人權宣言等에 依하여 保障된 人間의 基本權인 善信의 自由를 南北間에 早速히 施行하라.</p>
1960.11.2	第5代 國會의 統一, 獨立, 民主韓國을 樹立한다는 一方案에 對한 決	「유엔」의 基本原則에 따라 韓國國 議(第15次「유엔」 民의 自由와 國家의 安全이 恆久히 總會에「맺세지」 또 確固히 保障될 수 있는 措置를 로 傳達) 講究하고 大韓民國憲法節次에 依하여 「유엔」監視 下에 人口比例에 따라 自由選舉를 實施할 것.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0.11.11	印度「메논」駐「유엔」代表의 声明	「유엔」테우리를 떠난 中立國監視 下의 南北總選挙를 要求하는 決議 案을 「유엔」에 提出할 予定이다.
1960.11.11	「유엔」 第 15 次 總회에 提出한 北 傀의 寬濬	「유엔」監視下의 總選挙에 反對하 고 1960年 8月14日 金日成이가 提出한 「南北朝鮮聯邦制」를 再確 認.
1960.11.19	北傀最高 人民會議 委員長 崔康鎰의 聯邦制度案	이 提案은 1960年 8月14日 金 日成이가 提出한 聯邦制를 詳細히 具體化한 것.
1960.11.24	北傀 最高人民會 議議長 崔元沢이 平壤放送을 通하 여 大韓民國國會 에 審議를 要求 한 案	1. 南朝鮮은 南北朝鮮을 通한 國 聯監視 下의 總選挙를 要求하는 立場을 拋棄하고 李承晩의 前轍 을 밟지 않는다. 萬若 이것을 受諾할 수 없다면 南北間의 斷 交關係를 回復하고 分裂된 勢力 을 再統合시킴으로써 最終的 統 一の 길을 準備하기 위한 暫定 的 措置라도 取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南朝鮮은 當分間은 南北朝鮮의

日 子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政治制度를 維持하고 兩政府의 獨 目的 活動을 維持하면서 北朝鮮首 相 金日成이 臨時措置로서 提出 한 南北朝鮮聯邦체組織에 同意한다. 이 聯合체는 經濟 文化 活動의 調整 및 發展에 總力을 傾注한다.</p> <p>3. 萬若 南朝鮮當局이 聯邦案도 受 諾할 수 없다면 南北朝鮮의 實業 家로 構成되는 純粹한 經濟委員會 을 設置하여 政治問題를 떠나 經 濟的 協調와 交流가 이루어지도록 提出한다.</p> <p>4. 南北朝鮮에 있어서 沒收, 無償分 配의 土地改革을 實施한다.</p> <p>5. 自由로운 旅行과 郵便交換을 許 可하고 記者를 交換한다.</p> <p>6. 雙方의 兵力을 10萬으로 또는 그 以下로 縮少시킨다.</p> <p>7. 南北協商會議을 板門店, 平壤 또 는 서울에서 即時 開催한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60.12.27	民族自主統一中央 協議會準備委員會 의 對政府聲明	南北間의 書信交換, 經濟, 文化의 交 流等을 實現케 하도록 政府에 要求 한다.
1961. 1.11	美國, 「윌리엄·홀 브라이트」上院外 交委員長의 聲明	韓國人은 그들 問題들 그들 自身이 解決하도록 許容되지 않으면 안되는 데 이와같은 選擇이 許容되기 前에 먼저 自由世界와 共產主義間의 關係 가 改善되지 않으면 안된다.
1961. 1.14	在美韓國問題研究 所長 金龍中의 韓 國中立化案에 관 한 張勉 總理 앞 公開演說	1. 國土統一을 위한 첫 段階로서 郵便物 交換, 其他 文化, 科學, 經 濟的 交流를 主張한다. 2. 「유엔」의 協調(助) 下에 韓國人 끼리 交涉하고, 解決을 模索한다. 3. 韓國의 地政學的 位置로 보아 韓國의 統一獨立과 領土의 保存은 韓國의 中立化에서 밖에 期待할 수 없다.
1961. 1.18	北傀祖國統一民主 主義戰線 中央委 聲明書에 나타난 統一方案	1. 南韓 革新系와 一部 政界가 南 北間의 經濟, 文化 및 書信往來를 實現할 것 등을 要求한데 대하여 이를 「열렬히」 歡迎하여 全幅的으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로 支技한다.</p> <p>2. 南北間의 接觸과 協商을 實現하는데 肯定的 意義를 가지는 것이 라면 南朝鮮의 政黨 社會團體 또 는 個別的 人士들의 어떠한 提議 에도 기꺼히 應하겠다.</p> <p>3. 가까운 時日 內에 板門店이나 다른 適當한 場所에서 朝鮮사람끼 리 모여앉아 相論하면 解決 못할 問題가 없다.</p>
1961. 2. 16	新民黨의 外交政 策에 나타난 統 一方案	<p>1. 南北統一은 「유엔」監視 下의 自由選舉를 繼續 推進한다.</p> <p>2. 統一問題를 研究하기 위하여 總 理 下에 統一部 또는 統一局을 設置하고 對共宣傳強化 言論人交流 視察, 救護糧穀 提供等을 積極的으 로 推進한다.</p>
1961. 4. 12	「유엔」第15次 總會 第1委員會 의 北傀條件附 同時招請案	<p>韓國問題의 討議를 效果的으로 하기 위하여 「유엔」의 權能과 權威를 受諾한다는 條件 下에 大韓民國과 北韓의 代表를 投票權없이 韓國問題 의 討議에 參席토록 招請한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註；總會員國 99 個國中 可 59，否 4 棄權 23，欠席 3 으로 可決</p> <p>當時，「유엔」은 「아프리카」의 新生諸國의 大量加入과 中立非同盟 諸國의 發言權이 세어졌기 때문에 「스티븐슨」美國代表는 南北韓 代 表의 同時招請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北韓側이 條件附 招請은 受諾할 수 없다고 拒否하여，4 月 14 日 第 1 委員會에 日本이 提出한 韓國代表 單獨招請 案이 贊成 44，反對 15，棄權 18，欠 席 22 로 採択되었다.</p>
1961. 4. 17	<p>北傀가 「유엔」第 15 次 統開總會議 長에게 보낸 書 翰에 나타난 統 一方案</p>	<p>1. 「유엔」은 自己憲章의 原則에， 立脚하여 朝鮮에서 美軍과 其他 一切 外國軍隊를 撤収하기 위한 措置를 할 것.</p> <p>2. 朝鮮問題는 朝鮮사람 自身の 손 에 의하여서만 解決하여야 한다.</p> <p>3. 朝鮮人民의 內政問題에 대한 外 部로 부터의 그 어떠한 干涉도</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1. 4. 25	言論人 金錫吉의 統一方案	<p>許容해서는 안된다.</p> <p>4. 「유엔」에서 朝鮮問題를 討議하게 되는 境遇에는 이러한 原則이 반드시 遵守되어야 한다.</p> <p>5. 「유엔」에서 朝鮮問題가 討議되는 以上 北傀政府는 自己代表를 派遣할 것이다.</p> <p>6. 北朝鮮政府는 自己代表의 參加와 同意없이 「유엔」에서 採択되는 그 어떤 決議도 認定치 않는다.</p> <p>1. 韓國民主中立化의 統一을 한다는 大前提條件 下에 「유엔」主管 밑에 南北總選舉를 實施한다. 但 選舉主管體는 中立國에 局限하여 構成함을 條件으로 한다.</p> <p>2. 同選舉主管機關은 韓國의 非常國民代表者 會議을 周旋할 수 있으며 可及的 選舉監視를 兼任하는 것이 좋다.</p> <p>3. 現行憲法의 存廢, 改正, 新制度等 問題는 將次的 統一國會의 權限으</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로 한다.</p> <p>4. 韓國의 民主中立化 統一은 「오스트리아」의 例에 의함이 無妨하다.</p> <p>5. 民主中立化로 統一政府가 樹立된 然後에 駐韓 外國軍은 撤收하고 同時에 外國과의 軍事協定도 一切 廢止한다.</p>
1961. 5. 4	서울대학교民族統一聯盟代議員會의 聲明書	<p>1. 南北学生会談開催 (後에 5月20日에 板門店에서 開催될 것을 決定)</p> <p>2. 學生, 記者와의 交流</p> <p>3. 學術討論會, 美術, 學問, 創作(文學)의 交流</p> <p>4. 南北學生 親善體育大會의 開催</p> <p>5. 政權担当者는 干涉해서는 안된다.</p>
1961. 5. 9	北傀祖國平和統一委員會結成大會의 聲明書에 나타난 統一方案	<p>1. 南北協商, 南北間의 經濟, 文化交流, 人士往來 書信交流等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게 될 方策이면 그 누구의 發起와 提議의 依한 것이 甚 間에 關係없이 支援歡迎할 것이며, 그의 實踐을 위하여 努力할</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1.		<p>것이다.</p> <p>2. 萬一 南朝鮮当局이 아직도 自由로운 南北總選挙를 受諾할 수 없다면 過度的 政策으로 聯邦制를 實施하거나 經濟委員會를 組織하여 南北間의 經濟, 文化交流와 協助를 實現하자.</p> <p>註; 南韓에서 一部 革命系와 政界에서 統一에 關한 問題가 자주 論議되자 이 機會를 利用하여 祖國平和統一委員會를 結成하고 積極的인 宣傳攻勢를 取할 것임.</p> <p>閣令으로 統一問題研究所를 外務部에 設置함 (發足치 못한채 第2共和國終熄)</p>
1961. 5.16	5.16 革命公約中에 나타난 統一方案	<p>民族的 宿願인 國土統一을 위하여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全力을 集中한다.</p>
1961. 6.24	金弘老 外務部長官 聲明	<p>「우리는 武力에 의한 國土統一을 願하지 않으며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을 追求하며 國聯監視 下의 南北</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總選舉實施案을 強調한다」는 革命政 府 統一方案을 発表 아울러 國聯이 韓國問題에 關하여 活動할 그 權能과 權威를 尊重한다 표 言明</p>
1961.6.25	<p>朴正熙國家再建最 高會議議長言明</p>	<p>9月 開催되는 「유엔」 第16次 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와 解決에 대한 従来の 政府方針에 何等的 變 화가 없음을 闡明함.</p>
1961.7.6	<p>北傀, 蘇聯友好協 助 및 互相援助條 約에 나타난 統 一方案</p>	<p>1. 朝鮮의 統一이 平和的이며, 民主 主義的인 基礎위에서 實現되어야 한다. 2. 이와같은 解決이 朝鮮人民의 民 族的 利益과 極東에서의 平和維持 에 符合된다고 認定한다. 註; 1961.7.11 中'共와 北傀 間에 締結된 「朝·中友好協助 및 互 相條約」에도 이와같은 內容의 句節이 있음.</p>
1961.8.14	<p>北傀, 金一이 8.15 16週年紀念式에서</p>	<p>1. 祖國의 平和統一은 어떠한 外勢 의 干涉도 없이 오직 朝鮮人民</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1961. 9. 1 北傀 第4次 労働 党大会宣言</p>	<p>行한 報告演說中에 나타난 統一方案</p>	<p>1. 自身의 손에 의하여 民主的 基礎 위에서 自由로운 - 南北總選舉의 方法으로 實現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一貫된 主張이며 確固不動한 原則이다.</p> <p>2. 平和統一을 위하여서는 于先 우리 民族끼리 한자리에 모여 앉아 胸襟을 털어 놓고 協商하는에서부터 始作하여야 할 것이다.</p> <p>3.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하여 나서기만 하면 政見과 信仰 所屬의 差異와 過去如何를 不同하고 恆常 그와 손을 맞잡고 나갈 것이다.</p> <p>4. 南朝鮮 經濟를 復興시키고 民生問題를 解決하는 唯一한 길은 南北의 交流를 實現하며 北의 強力한 經濟力에 依拠하여야 한다.</p> <p>5. 祖國의 平和統一은 美軍을 撤收시키고 어떠한 外勢의 干涉도 없이 民主主義的 基礎 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一方案	<p>政府를 樹立하는 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p> <p>2. 總選舉에 앞서 반드시 人民大衆의 民主主義的 權利와 自由가 保障되어야 한다.</p> <p>3. 總選舉에 앞서 반드시 南北朝鮮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들과 個別의 人士들이 全朝鮮 어느 地域에서나 政治活動을 進行할 完全한 自由를 가져야 한다.</p> <p>4. 總選舉는 반드시 一般적이고 平等的이어야 하며 投票의 秘密을 徹低히 保障하는 民主主義的 選舉로 되어야 한다.</p> <p>5.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의 過去 如何한 階級的 地位, 社會的 地位, 政見과 信仰의 如何를 不問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p> <p>註: 5年만에 開催되는 第4次 勞動</p>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党大会에서 新 7 個年計劃案 討議와 偽裝된 統一論을 反復하였다. 3 日間의 同會議에서 平和的統一 (共產統一) 의 正当性을 再確認하는 「祖國에 平和統一에 대한 宣言文」을 採択하였고 金日成은 그 演說을 通하여 南北統一은 「붉은 色의 家庭」을 만드는 것이라고 言明하였다.</p>
1961.10.14	<p>蘇聯共產黨第 22 次大會에서 行한 金日成의 演說에서 言及된 統一方案</p>	<p>韓半島는 平和的 統一의 原則下에 美軍의 撤収 및 外勢의 干涉없는 協商의 方法에 의해 統一되어야 한다.</p>
1961.10.23	<p>崔德新外務部長官의 「유엔·데이」에 즈음한 談話文에서 言及된 統一方案</p>	<p>大韓民國은 兩斷된 國土를 統一할 課業達成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 問題에 解決에 있어서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認定하며 이 世界機構에서 講究된 平和統一 原則을 支持한다.</p>
1961.11.15	<p>朴正熙大統領權限 代行 및 「케네디」美大統領의</p>	<p>「유엔」總會에 의하여 闡明되고 再確認된 原則에 따라 平和的 方法으로 韓國의 自由統一을 追求할 決議를 再</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1.11.20	<p>共同声明에 나타 난 統一方案 崔德新 外務長官 이 「유엔」에 提出한 覚書</p>	<p>確認함. 「유엔」監視下에 個人比例에 의한 自由秘密選舉로 統一한다.</p>
1961.12.19	<p>北傀 条件附 招 請案에 대한北傀 外務省声明</p>	<p>1.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政府는 「유엔」憲章을 恒常尊重하고 認定 하여 왔다. 2. 戰後處理問題인 韓國問題는 決코 「유엔」에서 討議할 問題가 아니다. 3. 韓國政府가 韓國問題를 「유엔」 에 맡고가서 해마다 非法的 討議 를 進行한 것은 韓國을 侵略하고 韓國의 平和的 統一을 妨害하는 그의 犯罪的 行爲를 「유엔」의 깃발로 隱蔽하기 위한 것이다. 4. 韓國의 平和的 統一은 美軍을 南韓에서 撤去시키고 韓國사람 自 身이 解決하여야 된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5. 「유엔」總회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參加와 同意없이 一方的으로 韓國問題에 關한 討議를 進行하면 그 어떠한 決議案을 採択해도 이를 認定치 않을 것이며 無効로 할 것이다.</p>
1961.12.20	「유엔」第16次 總會決議	<p>1. 韓國에 있어서의 「유엔」의 目的이 平和的 手段을 통하여 하나의 代表的 政府下에 統一되고 獨立된 民主的 韓國의 樹立과 同地域에서의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安全恢復에 있음을 再確認하고</p> <p>2. 이 目的達成을 위하여 繼續努力토록 促求하며</p> <p>3. 「엔키크」가 이미 關聯된 「유엔」의 決議에 따라 그 任務를 繼續토록 要求</p> <p>註; 總會員國 104 個國中 可60, 否11, 棄權27, 欠席6</p>
1962. 6.20	北傀 最高人民會議 第2期 第11次會議	<p>(美軍을) 撤退시키고 南北間에 武力不可侵條約을 締結, 10萬 以下</p>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2. 7. 2	議에 있어서의 崔 蔚健(委員長)의 의 報告 「유엔」第17次總 會 事務總長에게 보낸 北傀覺書에 나타난 統一方案	로 減軍한다. 2. 板門店이나 平壤 또는 서울에서 南北協商會議을 연다. 上記 崔蔚健의 報告內容과 同一
1962. 10. 24	北傀「最高人民會議 第3期 第1次 會 議에서 行한 金 日成의 施政演說	1960年 8月14日에 行한 金日成 의 演說內容과 同一
1962. 12. 6	「유엔」의 各國代 表에게 보낸 金龍 中の 書翰	1. 軍事休戰委員會를 中立國委員會와 交替할 것. 2. 南北의 市民으로 構成되는 諮問 連絡委員會를 들것. 3. 經濟交流, 南北往來를 促進시킬 것. 4. 嚴正中立政策을 取할 것.
1962. 12. 11	北傀(外務省)가 「유엔」會員國에 配布한 聲明書	1. 國聯은 朝鮮問題를 다룰 權利가 없다. 2. 南朝鮮으로 부터의 美軍 即時撤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62.12.12	「유엔」 第17次 總會에 提出한 蘇聯은 本提案을 後에 撤回 함)	<p>退.</p> <p>3. 「언커크」의 解体.</p> <p>4. 朝鮮問題는 南北朝鮮自体가 解決 한다.</p> <p>1. 南韓 駐屯 外國軍의 撤収</p> <p>2. 南北韓 政府의 經濟, 文化交流의 促進과 相互友好關係樹立을 위한 努力을 促求한다.</p>
1962.12.17	「유엔」 第17次 總會 政治委員會에 서의 「가나」等 中立國의 提案	<p>在韓「유엔」軍을 非同盟中立諸國의 軍隊와 代置시키고 「유엔」韓國統一 委員會를 南北政府에 대하여 받아 들이기 쉽게 改組하자.</p>
1962.12.19	「유엔」 第17次 總會, 政治委員會에 서의 「이라크」代 表의 提案	<p>韓國統一에 合意를 보도록 努力하는 特別會議을 召集하자.</p>
1962.12.19	「유엔」 第17次 總會決議	<p>1. 平和的 手段에 의하여 統一, 獨 立, 民主韓國을 樹立하고 同地域에 있어서의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完全回復을 이룩하려는 「유엔」의</p>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目的을 再確認하고</p> <p>2. 總會에 의하여 거듭 確認된 이 들 「유엔」의 目的을 北傀当局이 受諾토록 要求하며</p> <p>3. 이들 目的 達成을 위한 繼續的 인 努力을 促求하며</p> <p>4. 「언커크」가 總會決議에 따라 그 任務를 繼續토록 要求</p> <p>註：總會員國 110 個國中 可 63, 否 11, 棄權 26, 欠席 10</p>
1963. 5. 15	民政黨 政綱政策 中에 나타난 統 一方案	國力培養에 의한 國土統一
1963. 6. 4	自由民主黨政綱政 策中에 나타난 統 一方案	<p>1. 「유엔」監視 下의 自由選舉를 原則으로 한다.</p> <p>2. 大韓民國 主權下에 自由民主主義 原則에 의한 平和統一方案을 樹立 한다.</p>
1963. 7. 5	在日僑胞, 金三奎의 統一方案	<p>1. 韓國의 統一은 東西雙方間에 安 心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p> <p>2. 統一韓國은 中立國이어야 한다.</p>

日 字	重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東西 어느 側과도 軍事同盟을 맺지 말아야 하며 韓國領土 內의 어느 곳에도 他國의 軍事基地를 許諾해서는 안된다.</p> <p>3. 이와같은 中立國은 그 主權과 領土가 國際적으로 保障되어야 한다.</p> <p>4. 中立 統一韓國을 實現하기 위하여</p> <p>1) 統一韓國을 中立國으로 한다는 前提 下에 東西가 合意할 수 있는 選舉監視下에 南北을 통한 自由選舉를 實現해야 한다.</p> <p>2) 이와같은 選舉를 通하여 代議員을 選出하고 國會를 構成한다.</p> <p>3) 새로이 構成되는 國會에서 憲法을 制定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統一中央政府를 樹立한다.</p>
1963. 7. 18	民主黨政綱政策中에 나타난 統一方案	勝共을 위한 拳國的 態勢의 確立과 「유엔」을 위시한 外交強化에 의한 國土統一

日 字	重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3. 6. 4	自由民主党政綱政策 中에 나타난 統一 方案	1. 国土統一은 「유엔」의 正當한 監視下에 自由民主主義 原則에 立 脚한 南北韓 總選舉로 成就한다. 2. 政治, 經濟, 教育, 文化等 諸分野 에 걸쳐 勝共態勢를 完備한다. 3. 統一政策과 統一 後의 施策을 研究하기 위하여 国土統一研究機構 를 設置한다.
1963. 9. 5	國民의 党 政綱政 策中에 나타난 統 一方案	国土統一을 위한 研究機關을 設置하 고 그 對策을 講究한다.
1963. 9. 8	北傀 最高人民會議 崔庸健委員長의 北 傀 創立 15週年 紀念大會에서의 演 說	1. 南北協商과 南北合作을 推進하자 2. 美軍을 撤退시키고 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10萬以下로 減軍하자 3. 自主的, 平和的, 民主主義的 基礎 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突 施하자.
1963. 10. 24	朴正熙議長의 「유 엔·데이」에 즈음한 紀念辭 가운데서 나 타난 統一方案	民族의 至上課題인 国土統一을 推進 함에 있어서 「유엔」의 權威를 尊 重하고 「유엔」監視 下에 總選舉를 實施하는 것이 우리의 基本原則이다.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3.11.6	金鍾泌氏의 서울大에서 行한 政治討論 中에 나타난 統一方案	<p>1. 3次大戰이 일어나 勝利하는 편의 힘으로 可能하겠지만 이는 非現實的이다.</p> <p>2. 6.25처럼 同族相爭에서 勝利한 편에서 可能할지 모르나 이것은 國際情勢로 보아 不可하며 同族끼리 싸우는 것을 贊成하지 않는다.</p> <p>3. 우리가 願하는 方法에 따라 統一할 수 있도록 우리의 經濟實力을 늘리는 것이다.</p>
1963.11.22	北傀当局이 「유엔」 才18次 總會에 「韓國統一問題解決에의 길」에 관한 覺書	<p>① 美軍의 南朝鮮으로부터의 撤退</p> <p>② 「언커크」의 解体</p> <p>③ 一切 外勢의 干涉없이 自主的 南北總選舉 實施</p> <p>④ 南北朝鮮의 武力不可侵 및 平和 條約締結</p> <p>⑤ 双方의 兵力을 10萬 以下로 減少</p> <p>⑥ 南北朝鮮 經濟文化交流</p> <p>⑦ 統一의 始初措置로서 南北朝鮮聯邦 制를 實施하여 汎國民委員會를</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3.12. 3	「유엔」차 18次 總會에 提出한 韓 國問題에 관한 大 韓民國 覺書	設置 1. 平和的 方法을 通하여 2. 民族自決의 原則에 따라 土着人 口數에 比例하여 代表가 選出되어 야 한다. 3. 이러한 全國的인 選舉는 「유 엔」監視下에 行한다.
1963.12. 5	在美韓國問題研究所 長 金 權中이 「유 엔」의 事務總長에 게 伝한 統一方案	1. 現存 軍事停戰委員會를 9 個國代 表로 構成되는 解放統一委員會와 代置한다. 「解放統一委員會」은 交戰當事國 双方에서 各各 2 個國 아시아의 中立國 3 個國, 歐洲 및 美洲의 中立國 各各 1 個國으로 構成한다. 2. 南北에서 選出된 著名한 市民으 로 構成하는 諮問連絡 朝鮮人委員 會를 設置하여 「解放統一委員會」 을 補助케 한다. 3. 「解放統一委員會」의 指示와 指 導 밑에 모든 外軍은 撤去한다. 그리하여 朝鮮武裝軍隊는 國際保安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軍의 水準으로 引下시키고 委員團의 臨時管理下에 둔다.</p> <p>4. 南北 兩 政權의 雙方治安軍은 「解放統一委員團」에 대하여 兩方의 立場을 忌憚없이 協力하는데 寄与하도록 要請케 한다. 그리하여 朝鮮統一을 沮害하는 如何한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 協定도 이를 無効로 宣言케 하며 破壞的, 活動이나 侮辱的 乃至는 煽動的 宣伝은 一切 中止한다.</p> <p>5. 南北韓의 自由交易, 離散家族의 再會市民의 權行을 促進하기 爲하 「解放統一委員團」의 監督과 管理下에 38線障壁을 徐徐히 撤廢한다.</p> <p>6. 「解放統一委員團」에는 다시 民主的 妥協의 過程에 의한 兩朝鮮 政權間의 政治的 異見을 調整케 하여 兩政權으로 하여금 理解와 協力の 愛族精神에 立脚한 交渉으</p>

日 字	主要事項	內 容 概 要
		<p>로 朝鮮統一이 實現될 斡旋의 權限을 賦與한다.</p> <p>7. 「解放統一委員團」의 助言과 監視 下에 全 朝鮮政府樹立을 위한 憲法을 起草할 憲法制定 國民議會의 選舉를 行한다.</p> <p>8. 全 朝鮮政治는 嚴格한 中立을 誓約하며 「유엔」과 隣近諸國은 朝鮮의 獨立主權과 領土保全의 不可侵性을 保障한다.</p> <p>9. 中立協定の 遂行을 監視하기 爲하여 10年間 朝鮮에 「유엔」의 委員團 또는 다른 適當한 機關을 設置한다.</p>
1963. 12. 10	北傀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祖國平和統一委員會의 合同會議에서의 南韓 大衆, 政界人士 및	<p>1. 美軍撤退와 南北間의 不可侵 平和協定締結 및 10萬以下로 減軍</p> <p>2. 南北間의 自由로운 往來와 人士 交流</p> <p>3. 板門店에서의 協商會議</p> <p>4. 板門店에 常設經濟委員會를 設置하여 經濟協力과 交流問題를 協議</p>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社会活動家에 보내 는 呼訴	하고 商品見本市를 開設 5. 南北間의 鐵道, 通信, 電話를 復 舊 開通
1963.12.13	「유엔」 才 18 次 總會에서의 「인도 네시아」代表의 主 張	「유엔」은 韓国問題를 處理할 能力 이 없다. 中立國 等の 斡旋으로 「유엔」밖에서 南北韓代表의 直接協 商을 通하여 韓國統一問題가 協議되 도록 國際會議를 열어야 한다.
1963.12.13	「유엔」才 18 次 總會決議	才 17 次 總會 決議와 同一 註; 總會員國 111 個國中 可 65, 否 11, 棄權 24, 欠席 11
1964. 1. 3	蘇聯首相 「호루시초 프」가 世界 各國 政府首腦에게 보낸 「메세지」	1. 外部의 壓力과 干涉없이 즉 南 韓이나 南 「베트남」에서와 같은 軍事的 占領없이 該當國 人民에 의하여 檢討되고 解決되어야 한다. 2. 이 問題解決에 武力使用은 褫棄 되어야 하며 該當國家人民 스스로 가 平和的 手段으로 統一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해야 할 것이다.
1964. 1. 7	徐琨濂氏의 統一	1. 「유엔」監視下에 自由選舉를 實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方案	<p>1. 施하되 大韓民國의 主權을 認定해 야 한다.</p> <p>2. 「유엔」機構를 通하여 南北의 書信往來, 體育人, 言論人의 交流를 實施한다.</p> <p>3. 將次 있을지도 모를 「유엔」機構를 通한 統一選舉에 對備하기 위하여 越南同胞들에게 미리부터 組織的인 訓練을 必要가 있다.</p>
1964. 1	金大中氏의 統一 方案	<p>1. 「유엔」監視下에 南北總選舉를</p> <p>2. 「유엔」其他 亦未字往의 嚴重한 監視下에 南北總 書信往來</p>
1964. 1.10	朴正熙 大統領의 年頭教書에 나타 난 統一方案	<p>共産主義와 對決하여 民主主義의 勝利로서 祖國統一을 成就한다.</p>
1964. 1.14	民政黨 政策基調 演說에서 나타 난 統一方案	<p>1. 政府機構內에 與野官民이 共同으로 參與하여 統一問題와 北韓實情을 專門的으로 다루는 機關을 設置한다.</p> <p>2. 自由民主主義 原則下에서 南北韓이 統一되어야 하며, 그 方法은</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유엔」監視下에 「유엔」의 權威와 機能이 尊重되는 前提下에서 人口比例에 따라 南北韓을 통한 總選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964. 1. 15	三民會政策基調演說에서 統一方案에 關한 演說	「유엔」監視下의 自由選舉에 의한 國土統一이 이루어져야 하며, 統一問題를 研究하는 公的機關을 設置한다. 註: 三民會는 民主黨, 自由民主黨, 國民의 黨의 院內交涉團體임.
1964. 3. 27	北傀最高人民會議가 韓 國 國 會 議 員 人 士 및 國 會 議 員 에 對 한 呼 訴	1. 韓·日會談을 粉砕하고 日本軍國主義者의 再侵略을 沮止하자. 2. 南北合作을 實現시키며 外勢干涉을 排擊하여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한 救國對策을 協議하자 (南北協商) 3. 南北間의 經濟, 文化, 書信의 交流와 人士의 往來를 實現하자. 4. 美軍을 撤退시키기 위한 反美救國鬪爭을 強化하자.
1964. 10. 26	丁一權 國務總理의 國會에서의 答辨	1. 「유엔」監視下에 人口比例에 의한 總選舉로 統一한다는 政府方針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64.10.27	李萬變議員外 45 人 「南北家族面会所設置에 관한 決議案」	<p>에 妥함이 없다.</p> <p>2. 南北面会所設置案에 대해 政府는 考慮한 바 있다.</p> <p>面会所設置를 國際赤十字社主管下에 두고 家族名單의 提示, 名單의 正確한 調查, 面談場所의 設定과 具體的인 面會節次等 國赤主管下에 大韓赤十字社와 北傀赤十字社가 論議決定토록 하자는 案을 냈으나 後에 同案을 撤回하였다.</p>
1964.10.27	「로버트 케네디」美法務長官의 發言	<p>統一方案의 選擇은 韓國民의 意思에 의한다.</p> <p>韓國民이 希望한다면 中立化도 觀望다. 그러나 中共의 侵略的 政策 때문에 統一을 論議할 時期가 가까운 將來에 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p>
1964.11.3	朴正熙 大統領의 「학생의 날」演說	<p>「유엔」監視下의 南北自由選舉 以外의 어떠한 統一方案도 있을 수 없다. 感傷的인 空論만으로 統一이 되는 것은 아니다.</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4.12.12	在美 韓國問題研 究所長 金龍中이 韓國 및 北傀首 腦에게 보낸 韓 翰	<p>統一이 急하다고 하지만 方法論까지 바꿀 수는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南北協商을 위한 統一委員會를 構成한다. 2. 居住地選擇의 自由와 南北間 貿易의 無制限한 自由南北間의 郵便, 電話, 電信, 輸送 및 電力供給의 再開 全國을 通한 學術, 體育活動 參加, 3. 韓半島로 부터 全 外國軍隊의 同時撤退와 南北兵力의 縮少. 4. 軍事休戰委員會를 解体시킨다. 5. 制憲國會의 選舉를 위하여 比例 代表原則에 의하여 自由로운 全韓 國選舉를 準備한다. 6. 南北現政權이 締結한 모든 協定 條約 公約을 無効로 하고 韓國의 中立的 地位를 確立한다.
1964.11.12	民政, 民主, 自民 三黨의 統一方案 에 대한 共同聲明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民族自主의 大原則下에서 國土統一을 追求한다. 2. 50年代에 確立된 「大韓民國 憲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4.11.29	第6代国会의 「国土統一方案에 관한 決議案」(民主共和黨의 金東煥氏外 84名에 의하여 提出)	<p>法이 保障하는 韓國國民의 自由와 國家의 安全이 恆久히 保障될 수 있는 措置를 講究하고 「유엔」監視下에 人口比例에 의한 自由選舉를 實施한다」는 原則을 再確認한다.</p> <p>3. 統一對備策의 基本은 民主的 生活權의 確立과 飛躍的인 産業建設 및 貧困의 追放이다.</p> <p>1. 韓國國民의 自由, 平和 및 民主 獨立國家로서의 存立과 安全이 永久히 保障될 수 있는 確固한 基盤위에서 「유엔」監視下에 南北韓 土着 人口比例에 따라 自由로운 選舉를 實施하여 國土를 統一한다.</p> <p>2. 眞正한 自由選舉를 保障키 위해 選舉監視團은 自由選舉를 實施하는 「유엔」會員國家中에서 選任되어야 하며 北韓에 있어서의 共產勢力의 支配와 干涉이 終식되어 自由秩序가 確立되어야 한다.</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4.12.4	北傀 祖国平和統一委員會의 声明	<p>3. 統一된 韓國의 民主主義와 全韓 國國民의 自由民權保全을 威脅하는 統一方案은 一切 排除한다.</p> <p>1. 朝鮮의 統一問題를 「유엔」에 맡기려고 하는 것은 實際로는 存在할 수 없는 일이다. 國聯의 監視란 美帝國主義의 侵略을 正當化 하는 것이다.</p> <p>2. 朝鮮의 統一問題는 朝鮮人 自身의 손으로 自主的으로 解決해야 할 일이다.</p> <p>3. 美侵略軍의 即時 撤退와 一切의 外國勢力의 干涉을 排除한다.</p> <p>4. 南北間의 民族的 連絡을 回復하고 接觸과 協商을 實施케 한다.</p>
1965.1.8	北傀 金日成의 金龍中에의 回信	<p>1. 朝鮮의 統一問題는 朝鮮人 自身이 解決하지 않으면 內政 問題이다.</p> <p>2. 一切의 外國軍隊가 撤退한 後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原則에 의해서 秘密投票로서 南北自由 總選舉를</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實施한다.</p> <p>3. 반드시 聯邦制가 아니라도 南北 朝鮮代表에 의하여 構成되는 統一的인 機關을 常設하여 自主的 統一을 實現할 對策을 講究한다.</p> <p>4. 南北間의 經濟, 科學, 文化, 藝術, 體育, 書信人士交流를 實現시킨다.</p> <p>5. 統一問題의 解決에 이바지하는 어떠한 對策이든 取한다.</p> <p>6. 南北이 一切의 外國과의 軍事條約을 破棄하고 南北雙方의 兵力을 縮少한다.</p>
1965. 2. 15	<p>北傀 祖國統一民主主義 戰線中央委員會의 連席會議에서 採択된 南韓人에 보내는 呼訴</p>	<p>1. 韓·日會談이 妥結되면 南朝鮮人民은 美·日帝國主義者의 2重의 奴隸로 轉落한다.</p> <p>2. 南北의 經濟, 文化의 交流와 合作을 實現시키기 위하여 反美 救國鬪爭을 展開하자.</p> <p>3. 韓·日會談을 粉碎하고 美帝國主義者를 몰아내고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시키기 위하여 團</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5. 4. 14	北傀 金日成의 「인도네시아」 「아리·아루함」社会科学院에서의 演說	<p>結하여 鬪争하자.</p> <p>祖国의 統一과 朝鮮革命의 全国的 勝利는 다음 세가지에 의한다.</p> <p>1. 北朝鮮에서 社会主義建設의 強化</p> <p>2. 南朝鮮人民의 結束에 의한 革命勢力의 強化</p> <p>3. 朝鮮人民과 國際革命勢力과의 團結強化</p>
1965. 10. 19	朴正熙 大統領의 記者들의 書面質問 答辨에서의 言及	<p>누차 밝힌 바 있듯이 「유엔」原則에 立脚, 南北韓, 土着人口比例 위에 自由選舉라는 基本方針은 確固不動한 것이다.</p>
1965. 11. 20	「우·탄트」 유엔 事務總長, 中共, 北傀等に 「유엔」門戶開放提議	<p>12.1 開幕되는 「유엔」總會에 提出하는 世界情勢에 관한 年例報告에서 中共의 「유엔」加入問題가 매우 重要하다는데 留意하면서 中共을 비롯하여 北傀, 東独 및 越盟에 대한 「유엔」門戶開放을 提議.</p>
1965. 11. 29	国会 予決委에서 「丁一權總理의 答辨要點(金大中議員	<p>「유엔」監視下의 總選舉라는 統一方案에는 妥협이 없지만 그 監視團이 公正한 選舉를 保障할 수 없는 것</p>

日 子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65.12.23	質問에 대하여)] 政府의 「유엔」會 員國 앞으로의 統 韓方案에 관한 覺 書 (要點)	으로 看做될 때는 政府는 이를 受 諾하지 않을 것이며 國民도 容納하 지 않을 것이다. 1. 北傀는 外軍撤収와 外勢를 排除 하자고 主張하여 南侵의 機會를 繼續노리고 있다. 2. 「유엔」은 民族自決을 實現케 하는 機構이며, 自由選舉를 통한 統韓方案이 가장 適切하고 全韓國 國民의 意思에 合致되는 方法이다.
1965.12.21	「유엔」 才 20 次 總會決議	才 18 次 總會 決議와 同一 註: 總會員國 117 個國中 可 61, 否 13, 棄權 34, 欠席 9
1966. 1.18	朴正熙 大統領의 年頭敎書에서 言 及된 統一方案	1. 우리의 至上命令은 바로 祖國의 統一이다. 統一의 길이 祖國近代化에 있고 近代化의 길이 經濟自立에 있다. 2. 對「유엔」政策에 있어서 統一을 위한 우리의 基本政策에 추호의 變動도 없이 이를 堅持할 것이다.
1966. 1.21	民衆黨의 政策基	1. 統一을 위한 最大의 先行條件은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調演說에서 言及 된 統一方案	<p>오직 南韓에 있어서의 政治經濟 社會의 모든 事件이 北韓의 그 것을 压倒하는데 있다는 點을 다시 한번 強調한다.</p> <p>2. 우리가 統一에 대해서 보다 熱誠的이고 能動的인 姿勢를 보여 주는 것만이 國民의 愛國心과 情熱을 하나의 方向으로 集結하는 길이 되는 것이며 朝夕으로 統一의 成就를 떠들어 대고 있는 北傀의 政略을 粉碎하는 길도 된다.</p> <p>3. 이런 意味에서 國會 안에 統一問題에 대한 特別委員會를 設置하여 統一에 대한 우리의 不斷한 對策을 樹立해 나가도록 提議한다.</p>
1966. 1. 22	民主共和黨 政策 基調 演說에서 言 及된 統一方案	<p>1. 우리의 積極 外交가 統一成就에 다가서는 確實한 作業의 一環이 될줄로 안다.</p> <p>2. 「유엔」監視下의 南北韓 人口</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6. 5. 8	李東元 外務部長 官의 記者會見에 서 밝힌 統一方 案	<p>에 比例하는 自由選舉 方案을 堅 持한다.</p> <p>3. 우리가 指向하는 祖国近代化야 말로 国土統一의 大前提요 中間目 標이다.</p> <p>1. 지금까지 「유엔」의 統韓方案보 다 더 現實的이며 國民利益에 맞 는 方案은 없다.</p> <p>2. 北傀는 統一을 위한 첫걸음으로 「언커크」入北을 許容하라.</p> <p>3. 統一이 안되는 理由는 國民의 統一무드의 不足이나 統一을 위한 機構의 欠陥에 있는 것이 아니라 國內外的 与件이 갖추어 지지 않 았기 때문이다.</p>
1966. 6. 7	法務部의 統一方 案에 대한 有權 的 解釈	<p>法務部는 反共法과 關聯하여 南北韓 統一方案에 대한 法的限界를 1954 年 5月「저네브」會談에서 提案한 我國의 南北韓 統一方案만이 適法한 것이라는 有權的 解釈을 내림.</p>
1966. 6. 8	朴正熙 大統領의	<p>南北韓 統一問題는 「70年代後半期에</p>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p>記者會見에서 言及된 統一問題</p>	<p>가서 本格的으로 論議될 것으로 본다.</p> <p>一部 政治人들이 無責任한 發言을 한다고 統一이 되는 것도 아니고 人氣政策으로 그런 發言을 하는 것은 北傀에 利益만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金日成은 6.25挑發戰犯이므로 이 集團들과 論議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다. 이 戰犯들이 물러나고 새 民族勢力이 登場할 때는 그들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p>
1966. 6.16	<p>「아시아」 및 太平洋地域 關係會議 共同聲明에서 言及된 統一問題</p>	<p>1. 同關係會議는 1965年 12月21日字 「유엔」總會 決議 및 그 以前의 多數의 決議로 再確認된 韓國에 있어서 「유엔」의 目的을 強力히 支持하고</p> <p>2. 이러한 「유엔」의 目的은 平和的인 方法에 의하여 代議政府 體制下에 統一獨立, 民主的 韓國을 樹立하고 이 地域에 있어서 國際</p>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66. 9. 20	統一社會黨의 創 黨宣言, 綱領 및 政策中에 나타난 統一方案	<p>平和와 安全을 完全히 恢復하는 것인바 이와같이 「유엔」의 目標 가 모든 当事國에 의하여 尊重되 고 重視되어야 한다는 것을 再確 認하였다.</p> <p>民主主義的 祖國統一을 위한 拳族의 準備作業은 國民大衆의 信賴를 基盤 으로 한 높은 自主的 意慾과 高邁 한 識見과 不屈의 意志와 情熱을 가진 嶄新한 政治勢力의 形成이다.</p> <p>〔創黨宣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自主的, 民主的, 平和的인 民族統 一의 追求 2. 內戰犯罪者인 金日成 一派의 退 陣을 要求하는 「유엔」 및 蘇聯 에 대한 外交攻勢의 展開 3. 被拉人士의 送還要求 3. 言讓 및 民族文化領域에서의 學 術交流, 書信交換, 物資交流, 老齡者 帰郷, 修學旅行, 記者와 視察團 交 換등의 南北交流를 實施할 方案의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慎重檢討</p> <p>5. 「유엔」承認下의 中立国 監視 밑에 實施되는 南北 總選舉를 통한 統一方案의 摸索.</p> <p>6. 統一韓國의 中立的 地位의 保障 獲得追求.</p> <p>7. 統一韓國의 中共 및 蘇聯과의 境界線을 中心으로 「유엔」監視下의 緩衝地帶設置檢討.</p> <p>8. 統一問題에 관한 超党派의 研究 機關設立.</p>
1966.12.16	<p>自由黨의 政綱政 策中에 나타난 統 一方案</p>	<p>(政 策)</p> <p>1. 国力을 培養하여 國土를 統一하 고 民主友邦과 提携하여 正義에 立脚한 恆久的인 世界 平和에 寄 與한다.</p> <p>(政 綱)</p> <p>1. 國土統一의 早朝實現을 위하여 모든 努力을 傾注하고 統一에 對 備한 政治的, 經濟的 萬般의 態勢 를 갖춘다.</p>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66.12.22	民主社会党 綱領 및 政策中에 나타난 統一方案	<p>(政 策)</p> <p>1. 國際的 与件을 勘案하여 民族自彊을 土台로 部分的 統一로 부터 完全統一을 期한다.</p> <p>(綱 領)</p> <p>1. 超党的 統一協議機構를 通해 勝共統一의 基礎를 마련한다.</p> <p>2. 「유엔」, 其他 國際機構를 通하여 部分的 統一로 부터 完全統一에 이르도록 合法的인 南北交流를 實施한다.</p> <p>3. 分断된 國家間의 會議機構를 設置하고 統一方案을 研究摸索 한다.</p> <p>(政 策)</p>
1967. 1. 17	朴正熙 大統領의 年頭敎書에서 言及된 統一方案	<p>1. 統一을 위한 過程에 있어서 政治的, 文化的 課業에 充實하는데서 所期の 成果를 争取할 수 있다.</p> <p>2. 統一의 길은 經濟建設과 民主力 量의 培養이므로 우리의 經濟, 우리의 民主主義가 北韓으로 넘쳐 흐를때 그것은 곧 統一이다.</p>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67. 1. 18	新韓黨 尹潽善 總 裁의 基調演說에서 言及된 統一方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中立國에 대한 實質的 重點外交 를 함으로써 外交效果의 幅을 넓 혀야 한다. 2. 北韓에 대한 宣撫的 交流가 試 圖되어야 한다. 3. 自主적이고 總力的인 民族力量의 結果으로 統一課業에 前進해야 한 다.
1967. 1. 21	民衆黨의 政策基 調演說에서 言及 된 統一方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勝共民主統一을 戰取하기 위한 各 分野의 民主的 改革을 推進하 여 北傀를 凌駕할 綜合国力을 構 築한다. 2. 統一論議에 대한 幅넓은 限界를 許容하고 學問的 政策的인 共產圈 研究를 獎勵한다. 3. 統一政策樹立에 대한 汎國民的인 協議體를 構成하여 基本的 統一方 案을 樹立한다. 4. 政府內에 統一問題를 專担하는 部署를 新設한다. 5. 南北間의 人道的 書信交流와 記

日 字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p>者交換 등을 實施하여 政治적인 弄奸을 排除한다.</p> <p>6. 強大國家의 分斷責任을 追窮하고 西獨, 越南과 더불어 分斷國家會議을 構成하여 北傀를 制圧할 能動的인 統一外交를 展開한다.</p>
1967. 1. 23	美國「맨스필드」上院議員의 提案	<p>1. 1955 年에 이룩된 壤地利 統一의 路線을 따라 美·蘇·中共 3 個國에 의해 保障되는 中立을 土臺로 하여 南北韓을 統一시킨다.</p> <p>2. 中立化를 土臺로 한 韓半島의 統一을 위한 才 1 段階의 措施로서 南北韓 全域에 걸쳐 「自由롭고 公正한」 選舉를 實施하기 위한 「相互合意할 수 있는」 基礎를 다져 놓도록 「直接關係 當事者側」 즉 南北韓 關係者들의 會談을 開催케 할 수 있을 것이다.</p>
1967. 8. 26		UNCURK, 年次報告를 UN에 提出
1967. 10. 20		北傀, 才 22 次 UN 總會에 外軍撤収, UNCURK 解体 內容의 비망록 제출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7.11.16		才 22 次 UN 總會 本會議, 統韓決議案 贊 68, 反 23, 棄權 26, 欠席 5 로 可決.
1968. 1.21		北傀武裝共匪 31 名 南侵事件發生.
1968. 1.23		美情報艦「푸에블로」号 元山灣 公海上에서 北韓에 의하여 拉北.
1968. 1.25		武裝共匪 서울侵入事件에 관한 韓國政府覺書 「유엔」에 送付.
1968. 1.26		「푸에블로」号 事件으로 緊急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開催.
1968. 2. 2		「푸에블로」号 船員釈放을 위한 유엔軍司令部 - 北韓間의 才 11 次 板門店非公開會議.
1968. 4.17		朴・「존슨」 韓 - 美 頂上會談 (호놀룰루).
1968. 4.21		「푸에블로」号 乘務員釈放을 위한 才 15 次 板門店非公開會談開催 (美・北傀間).
1968. 8.29		「푸에블로」号 乘務員釈放을 위한 才 20 次 板門店非公開會談 開催.
1968.10.19		韓國, 統韓覺書 才 23 次 유엔總會에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8.11.21		提出. 삼척·울진지구 北傀武装共匪 浸透事 件 규탄각서 유엔에 제출.
1969.11.27		才 23 次 유엔總會 才 1 委員會 大韓民 國 单独招請案을 可決. 共産側의 南北韓共同招請案을 贊成 40 反對 55, 棄權 28 로 否決.
1968.12.6		才 23 次 UN 總會 才 1 委員會, 韓國側 統一決議案을 贊成 72, 反對 23, 棄權 26 으로 可決. 共産側 UN CURK 解体案을 贊成 27, 反對 68, 棄權 29 로 否決.
1968.12.22		「푸에블로」号 乘務員釈放을 위한 才 28 次 판문점비공개회담 개최.(美- 北傀間).
1968.12.23		「푸에블로」号 승무원 82 名 및 死亡한 승무원시체 1 具 北傀에 拉 北된 만 11 개월만에 美側에 引渡.
1969.3.7		UNCURK 才 1 次 全体會議 開催 (서울).
1969.4.15		美海軍大型偵察機 EC-121, 東海上에서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69. 4. 19		北僞에 의해 추락됨. UNCURK 才 2 次 全体會議 開催
1969. 5. 16		UNCURK 才 3 次 全体會議 開催 (5. 17 까지, 삿포로).
1969. 9. 6		UNCURK 才 24 次 유엔총회에 報告 書 提出.
1969. 9. 17		UN 總會運營委員會, 韓國問題에 관한 3 個 案件을 韓國問題라는 單一議題 下에 統合키로 議決.
1969. 9. 20		UN 總會, 韓國問題에 관한 9 月 17 日 字 運營委員會건의를 採択.
1969. 10. 8		才 24 次 UN 總會에 北韓 비망록 제 출.
1969. 10. 24		朴正熙大統領, UN 의 날 紀念式에서 致辭, 崔圭夏外務長官의 UN 의 날 「메시지」를 UN 事務總長에게 發送.
1969. 11. 17		UN 總會 才 1 委員會, 統韓決議案을 贊 71, 反 29, 棄 22, 欠 4 로 可決.
1969. 11. 25		UN 總會 本會議, 統韓決議案을 贊 72, 反 26, 棄 21, 欠 7 표로 可決.
1970. 1. 21		UNCURK 才 1 次 全体會議開催 (東京)

日 字	主要事項	內 容 概 要
1970. 2. 3		崔圭夏外務部長官, 北傀 對日細菌 密 輸入企圖에 규탄성명발표.
1970. 6. 15		北韓의 平和統一戰線을 규탄하는 韓 國政府覺書 발표.
1970. 8. 12		離國, 南北赤十字會談 提議.
1970. 8. 15		朴大統領, 平和的 統韓 構想 천명.
1972. 7. 4		南北共同聲明 發表.
✓ 1972. 8. 11		南北赤十字 예비회담 종결.
1972. 8. 29 ~9. 2		南北赤十字 第1次 본회담 (평양).
1972. 9. 12 ~16		南北赤十字 第2차 본회담 (서울).
1972. 9. 22		제 27 차 UN 總會, 韓國問題計議 1년 연기안 可決.
1972. 10. 12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番 第1차회 의.
72.10.17 10/17/72		
1972. 10. 23 ~26		南北赤十字 第3차 본회담 (평양).
1972. 11. 2 ~4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2차회 의 (평양).
✓ 1972. 11. 11		對南·對北 放送中止, 休戰線「스피커」 방송중지, 상호 「비라」살포 중지에 관한 합의 發効.
72.11.22 ~24		南北赤十字 第4차 본회담 (서울).

日 子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72.11.30 ~ 12.2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제3차 회의 (서울).
1972.11.30		南北調節委員會 제1차회의 (서울).
1973. 3.10		南北調節委員會 제1차 감사회의 (板門店).
1973. 3.14 ~ 16		南北調節委員會 제2차 회의 (평양).
1973. 3.20		南北赤十字 제5차 본회담 (평양).
1973. 5. 8 ~ 11		南北赤十字 제6차 본회담 (서울).
1973. 6.10		北韓, 南北調節委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합의사항을 위반 (休戰線上의 4개지역에서 拡声器에 의한 對南放送 재개.
1973. 6.11		北韓側, 상호中傷, 誹謗中止를 再提議.
1973. 6.12 ~ 14		南北調節委員會 제3차 會議 (서울).
1973. 6.23		朴正熙大統領, 「平和統一外交宣言」發表.
1973. 6.26		北韓 金日成, 「유엔」同時加入 反對 意思表明.
1973. 7.10 ~ 13		南北赤十字 才7次 본회담 (평양).
1973. 8.28		金英柱 평양측 공동위원장, 對話中止 聲明.

日 字	主要事項	內 容 概 要
1973. 8. 29		李厚洛 서울측 공동위원장, 8. 28 金英柱声明의 부당성 지적하고 同声明의 철회와 對話재개를 促求.
1973. 11. 15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對話再開 爲 해 간사위원회의 開催 제의.
1973. 11. 21		南北調節委員會 張基榮(서울측 부위원장, 평양측에 「南北調節委員會」 4次會議 早期開催 및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인원 개편문제 토의를 爲해 11월 27일 板門店에서 회의를 갖자」고 제의.
1973. 11. 21		제 28 차 UN 總會 政治委員會, 韓國問題에 關해 「合意聲明」 採択. (① 7. 4 共同聲明의 3個 祖國統一原則에 對한 만족표명. ② 南北間의 對話繼續과 多方位적인 교류 및 協力の 實시를 촉구. ③ 「언커크」의 즉각 해체(승인).)
1973. 11. 22		韓赤, 11월 24일 오전 10시 2차 連絡責任者 會議 開催 提議.
1973. 11. 22		北赤, 11월 28일 오전 10시 회의를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73.11.22		갓자고 수정 제의. 韓赤, 北赤 수정 제의를 受諾.
1973.11.27		南北調節委 평양측, 張基榮副委員長 앞으로 보내는 書翰을 통해 서울측 부위원장회의 개최 제의에 동의하고 개최일자를 12월 5일 수정제의.
1973.11.27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평양측 수정 提議를 受諾.
1973.11.28		南北赤十字 1차 實務代表者 會議 (北赤은 12月19日 서울에서 8차 본회담을 열자는 韓赤提議를 거부).
1973.11.28		유엔總會, 韓國問題에 관한 「合意聲 明」 만장일치로 採択.
1973.12. 2		李厚裕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공동 위원장, 건강상 이유로 解任 (서울 측 張基榮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 대리 결정).
1973.12. 5		南北調節委員會 第1次 부위원장회의 에서 서울측, 제2차 부위원장회의 일자를 12月12日로 제의.
1973.12.11		평양측, 제2차 부위원장회의 일자를

日 子	主 要 事 項	內 容 概 要
1973.12.11		12월 19일로 수정 제의. 서울측, 평양측 수정제의를 受諾.
1973.12.13		韓赤, 제 8 차 본회담 개최문제에 관해 北赤側의 상의를 촉구하는 書翰을 北赤에 발송.
1973.12.19		南北調節委員 제 2 차 副委員長會議 開催.
1974. 1. 18		朴大統領,北韓에 대해 「相互不可侵 協定」을締結할 것을 제의.
1974. 1. 26		北韓側, 勞動新聞社說을 통하여 朴大 統領의 「南北韓 相互不可侵協定締結 제의」를 拒否.
1974. 1. 30		才 3 次 南北調節委 副委員長會議 (板 門店).
1974. 2. 25		才 2 次 南北赤十字 實務代表 接觸 (才 8 次 本會談을 74.4.9 ~ 10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1974. 2. 27		才 4 次 南北調節委 副委員長 會議.
1974. 3. 11		才 3 次 南北赤十字 實務代表 接觸 (觀문점).
1974. 3. 17		才 5 次 南北調節委 副委員長 會議.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74. 4. 3		才 4 次 南北赤十字 実務代表 接触.
1974. 4. 24		才 6 次 南北調節委 副委員長會議.
1974. 4. 29		才 5 次 南北赤十字 実務代表 接触.
1974. 5. 22		才 6 次 南北赤十字 実務代表 接触.
1974. 5. 29		才 7 次 南北赤十字 実務代表 接触.
1974. 6. 28		才 7 次 南北調節委 副委員長會議.
1974. 7. 10		才 1 次 南北赤十字実務會議.
1974. 7. 24		才 2 次 南北赤十字実務會議.
1974. 8. 15		朴大統領, 「平和統一 3大基本原則」 提示.
1974. 8. 28		才 3 次 南北赤十字 実務會議.
1974. 9. 21		才 8 次 南北調節委 副委員長會議.
1974. 9. 25		才 4 次 南北赤十字 実務會議.
1974. 11. 5		才 5 次 南北赤十字 実務會議.
1974. 11. 29		才 6 次 南北赤十字 実務會議.
1974. 11. 30		南北調節委 双方代弁人 接触.
1974. 12. 3		평양측, 才 9 次 副委員長會議을 75. 1. 8 로 延期 및 74. 12. 4 双方代弁 人 接触을 계의.
1974. 12. 3		서울측, 才 9 次 부위원장회의를 75年 1月 8日 연기를 受諾하고 74. 12.

日 字	主 要 事 項	内 容 概 要
1974.12.14		18 幹事會議 開催を 提議. 南北調節委 双方代表人 接触 (판문 각).
1975. 1. 8		才9次 南北調節委 副委員長會議.
1975. 3. 14		才10次 南北調節委 副委員長會議.
1975. 5. 29		北韓側, 才11次 南北調節委 副委員長 會議 무기연기 일반통고.